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李箱) 단편소설에 대한 디지털인문학적 접근

- 감정과 감각을 중심으로 -

한 국 학 중 앙 연 구 원

한 국 학 대 학 원

인문정보학전공 : 지 해 인

목 차

I. 머리말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선행 연구	3
(1) 이상(李箱) 문학 연구사	3
(2) 문학적 디지털 분석 방법론	4
(3) 이상(李箱) 문학 연구의 디지털 분석 방법론	6
(4) 문학 감정 분석에 대한 디지털 분석 방법론	7
3. 연구 프로세스와 방법론	9
II. 이상 단편소설 데이터 구축	13
1. 인문 데이터와 문학 데이터	13
2. 기초 데이터 구축	15
3. 감각 분석 데이터 구축	21
4. 감정 분석 데이터 도출	29
III. 디지털 분석 프로세스	34
1. 전체 작품의 딥러닝 감정 분석	34
2. 전체 작품의 감각 분석	41
IV.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46
1. '깨달음'과 에피파니	46
2. 타 작품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48
3. 「집광이 轢死」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54
4. 「날개」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57
V. 마치며	62
참고문헌	63
부 록	68

I.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시대는 약동한다. 정보 기술이 초래한 파급은 기어코 인문학의 강토에까지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을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보는 진단이 상당 부분 공감을 얻으면서, 파급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인문학자들의 시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격류는 휩쓸리면 재앙이 되지만 파도타기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더 멀리까지 가 닿을 수 있는 순풍이 되는 셈이다.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¹⁾, 인문전산학(Humanities Computing)²⁾ 등으로 지칭되는 일련의 시도들은 이러한 고민에 대한 구체적인 화답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문학 연구는 정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세미한 탐구를 이진수(binary number)로 환원할 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에서, 전산 기술의 도입은 적극적인 항변에 직면해 왔다. 문학 연구는 더하다. 이는 문학 텍스트가 갖

1)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에 대한 정의는 김현(2013)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같음이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인문학의 주제를 계승하면서 연구 방법 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그리고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시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성격의 인문학 연구를 포함한다. 단순히 인문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디지털화 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디지털 형태로 간행하는 것보다는 정보 기술의 환경에서 보다 창조적인 인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를 통해 소통시킴으로써 보다 혁신적으로 인문지식의 재생산을 촉진하는 노력 등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새로운 조어의 함의라고 할 수 있다.”

2) 인문전산학에 대한 정의는 McCarty(1998), 재인용: 박찬길(2007), p. 58.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같음이다. “인문전산학은 전산도구를 인문학적 자료에 적용하거나 이러한 자료를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학문적 분야이다. 인문전산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방법론적이고 그 범위에 있어서 학제간적이다. 인문전산학은 인문학과 전산의 교차지점에서 작동하며 전산이 인문학 제 분야의 학술과 교육을 보조하는 방법이라는 실용적 과제들과 전산이 초래하는 인문학적 관점의 변동이라는 이론적 문제들에 대해 동시에 초점을 맞춘다. 인문전산학은 여러 기술들과 자료에 대한 접근법들의 공통된 근거와 학문적 과정들이 이해되고 기계화될 수 있는 방식들을 정의하려고 노력한다. 인문전산학은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근본적인 인지적 문제를 다루는 것과 더불어 전산에 의해 영향받는 지식의 사회학 내지 지식의 인식론을 연구한다. 인문전산학의 도구들은 전산학의 실용적 작업에서 비롯되지만 그러한 작업들이 늘 그러하듯이 그 도구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인지과학과 정신의 철학에서 개발된 지성의 모델들을 사용한다. 인문전산학은 특정한 연구대상들을 탐구하기 위해 그 도구들이 적용되는 분야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이러한 모델들의 유용성을 시험한다. 인문전산학적 지식의 대상은 인문학적 자료로 간주되는 모든 원자료들이다. 인문전산학은 마치 비교문학처럼 그 주제를 다른 분야에서 가져오고 다른 분야의 관심에 따라 인도되지만 결국에는 그 분야에 훨씬 더 도전적인 질문들을 다시 제기하며 기존의 문제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는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를 통해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고유의 심미적 표현 양상인 문학 텍스트의 기저를 해부할 수는 없다는 통렬한 지적은, 실제로 반박할 방도가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현재 컴퓨터가 ‘문학적 해석’을 기계적 연산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텍스트 분석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 일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컴퓨터의 경이적인 연산 능력은 비록 인간적 독해를 대신할 수는 없으나, 텍스트를 일관적인 기준으로 재편함으로써 새로운 독해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과 같이 기계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업을 인간이 붙들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작금의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기술적 보조만으로 극복될 수 있는 성격의 변화는 아니므로, 램지(Stephen Ramsay)를 위시한 일부 학자의 의견처럼 디지털인문학적 문학 연구가 보다 진취적으로 인문학적 의미 생산에 기여할 가능성도 전망해 볼 수 있다. 박찬길(2007)에서 인용한 윌라드 매카티(Willard McCarthy)의 주장처럼 전산학적 도구를 활용한 문학 텍스트의 분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인간적 분석과 함께 ‘발견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을 논할 때는 언제나 기술이 아닌 ‘인문학’에 방점이 놓여 있어야 하며, 전망이 아닌 실제적인 결과로 그 효용을 증빙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박찬길(2007)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문적 사기(academic charlatanism)라는 회의적 시선에서 온전히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간 이상 작품에 대한 무수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작품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총체적인 연구보다는 개별 작품 위주의 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고, 그 또한 정량적 지표 없이 연구자로서 지닌 통찰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우가 태반이라는 데에 본고의 문제의식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동원하여 이상(李箱) 단편소설 13편에 나타난 어휘와 감정, 감각의 전체·세부 양상을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와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를 동시에 경주함으로써 총체적으로 읽어 내는 과정을 수행하고자 한다. 모레티(Moretti)가 제안한 멀리서 읽기로 미처 규명(糾明)하지 못하는 행간을 연구자의 통찰력을 동원한 가까이 읽기로 보완함으로써 텍스트를 총체적으로 구명(究明)하는 것이 본고의 일차적인 목표이다. 부가적으로 본 연구가 아직은 낯선 국내 디지털 인문학적 문학 연구에 약소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본 연구의 간학문적 성격으로 인해 크게 다섯 방향의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대상으로 선정한 이상(李箱)의 단편소설 연구사를 개괄한다. 이후 문학적 디지털 분석 방법론과 이상(李箱) 텍스트 연구의 디지털 분석 방법론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감각·감정에 대한 문학 선행 연구, 형태소·감정 분석에 대한 문학적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필 것이다. 총 다섯 주제의 선행 연구인 만큼 자칫 그 분량이 방대해지기 쉬우므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 살펴보도록 한다.

(1) 이상(李箱) 문학 연구사

이상(李箱, 1910-1937) 텍스트는 소위 문제적 텍스트이다. “이상에 대한 연구물은 근대 문학자 그 어느 누구보다 많”(김주현, 2001)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상 텍스트가 논의의 대상으로 소환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상 텍스트에 대한 탐구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요인 중 하나로 이상 텍스트가 담지한 난해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연구자의 지적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탐구심을 추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탐구는 이상이 작품 활동을 하던 1930년대부터 촌평과 인상 비평을 위주로 시작되었다.

이상은 『조선과 건축』 등에 글을 기고하는 등 일찍이 활동하였으나, 대중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34년 「朝鮮中央日報」에 연재하게 된 「鳥瞰圖」 연작이라고 할 수 있다. 「鳥瞰圖」는 당시 독자들의 격노와 원성을 샀으며, 시인 김억(金億)은 이에 대해 신랄한 혹평³⁾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재서는 「날개」를 리얼리즘의 심화로, 김문집은 자본주의 말기 도회의 이면을 비극화해 보인 작품으로 높게 평가하는 등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시기의 이상 연구는 여전히 촌평과 인상 비평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이상 문학 연구는 전후 1950년대의 실존적 상황 속에서 궤도에 올랐다. 이 시기에 1세대 이상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임종국, 이어령, 고석규의 이상론이 전개되었다. 1세대 연구자들은 전후 실존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상 문학의 특성으로 ‘절망 의식’을 발견하였다. 임종국 편 『李箱全集』(1956)의 발간을 계기로 가속

3) 김안서, 「시는 기지가 아니다 - 이상 씨 '정식」, 매일신보, 1935.4.1

도가 붙은 이상 연구는 이어령 편 『李箱全集』(1977)의 상세한 주석에 힘입어 급속도로 활발해졌다. 이 시기의 이상 문학 연구는 정신분석학적 연구, 형식주의적 연구, 전기적 연구 등을 포괄하는 다채로운 것이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 이상 개별 텍스트의 미세한 지점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적 방법론에 영향을 받은 탐구도 증가하게 된다.

(2) 문학적 디지털 분석 방법론

문학은 그 특성상 계량적 방법론을 접목하기에 지난한 특성을 가진다. 이로 인해 그간 문학에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디지털 분석 방법론이 대두되면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호응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문학 연구가 점차로 등장하고 있다.

문학의 제 연구 중에서는 문체론(Stylistics)이 비교적 계량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특성을 갖는다. 문체(Style)는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특징”(characteristics of language use)(Leech and Short 2007)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학적 특징들은 비정형 데이터(unstructured data)에 해당하는 문학 텍스트 내에서 기계적으로 포착하기 용이하므로 디지털 문학 연구에 있어 주요한 접근 방법 중 하나로 채용된다. 따라서 ‘코퍼스 문체론(corpus stylistics)’으로 명명되는 이러한 방법론은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문학 연구의 유형 중 흔하게 관찰되는 편에 속한다.

가령 문체 분석을 위한 코퍼스 기반의 계량적 방법론을 논의한 문한별(2015)이나 김수영과 신동문의 시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접근 및 분석을 수행한 전은진(2017), 일제강점기 신문에 게재된 독자투고시 4,131편을 코퍼스로 구축하여 당시 독자시의 품사별 고빈도어와 등단 시인의 시와의 전반적 차이, 그리고 그 의미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장만호, 김일환, 김지율(2018), 『소현성록』 연작에 대해 문체적 차이에 따른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를 수행하여 본전과 별전의 저자가 동일한지 판단하고자 한 강우규, 김바로(2018), 박태원 소설에 대해 코퍼스 문체론적으로 접근한 김아름(2018), 가단(歌壇)의 시조 유형 탐색을 위해 BERT 모델을 활용한 딥러닝 분류 방법론을 도입한 김성문, 김바로(2021), 세르누다(Cernuda)의 『현실과 욕망(La Realidad y el Deseo)』 속 전기 시와 후기 시에 나타난 시어의 어휘적 특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하여 시 세계의 변모 양상을 논증하고자 한 장재원,

정혜윤(2022),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출항』(The Voyage Out)에 대한 코퍼스 기반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장르적 모호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 전보미(2022), 김유정 단편소설의 문체적 특성을 통해 페이소스적 문체, 양가적 문체라 명명함으로써 창작 원리의 차원에서 논의한 김아름(2023), 디포(Defoe)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와 이를 다시 쓴 콧시(Coetzee)의 『포』(Foe, 1986)를 Voyant-Tools라는 웹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두 작품 간 어휘 사용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가까이서 읽기(Close reading)를 병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한 윤서영(2023)의 연구 등이 문학 텍스트를 코퍼스로 구축하고, 어휘 및 품사, 고빈도어 통계 분석 및 딥러닝 분석 등의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통해 사용 어휘 등 텍스트의 문체적 특성을 포착하여 그 고유성과 특수성을 비교군과 대별함으로써 밝히거나 여타 텍스트와 구분되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한 작업에 해당한다.

한편 1877년에 창간된 비평 주간지 『런던』(London: The Conservative Weekly Journal of Politics, Finance, Society, and the Arts)을 대상 텍스트로 기초 통계, 형태소 분석, 토픽 모델링 분석 등의 방법론을 적용해 19세기 후반 영국의 비평 담론 연구를 질적 연구와 교차하여 수행한 윤미선(2023)과 같이 기초적인 수준의 양적 분석을 넘어 토픽 모델링 등의 보다 심화된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인문학적 통찰을 수행하고자 한 시도도 있으나 전산적 기술에 대한 연구자의 부담 등을 이유로 문학에 있어 이러한 접근은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코퍼스 구축을 바탕으로 단순 통계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은 문학 텍스트에 대한 기계적 분석이 쉽지 않으며,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이에 인문학적 설득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인문학적 문학 연구는 그 특성상 신뢰 가능한 전산화된 텍스트 유무가 중요한바, 디지털인문학적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그 실효성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 역시 한둘 등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의 근대한국학DB를 활용하여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게재된 문학 관련 기사를 선별하고, 문학 지형도를 그리고자 한 반재유(2022), 김수영 문학 연구를 위해 연세대학교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인 '별길'을 활용하여 김수영 문학 연구의 변화 양상 등을 보임으로써 현대문학에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효용을 입증하고자 한 김지아, 김재원, 유시어도어준(2022), 한국 근대 잡지에 게재된 흑인 시인의 작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인문 데이터 구축의 효용 등에 대해 다룬 김준환, 이진주, 조찬영(2022),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51종 잡지를 분석하여 근대 문학장을 조명함으로써 한국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전성규(2023)의 연구가 그 실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문학적 관점의 문학 연구 동향을 성찰하고 디지털 문학 연구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언을 도출한 정서현(2023), 여러 사례를 통해 디지털 인문학의 적용 가능성과 그 방향성을 논의한 김정숙, 김미영(2023) 등과 같이 디지털 인문학적 문학 연구의 행보를 정리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 제언하는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서현(2023)에서 지적한 것처럼 디지털 문학 연구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보다 메타 담론이 우세한 경향성이 갖는 함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디지털인문학 연구에 디지털 분석 방법론의 접목이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디지털 문학 연구에 한하면 작품의 어휘적 요소에 대한 기초 통계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등 방법론적으로 다소 고착된 경향이 관찰된다.

(3) 이상(李箱) 문학 연구의 디지털 분석 방법론

그간 이상(李箱) 문학에 대한 다채로운 분석이 시도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상 문학에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적극 도입한 사례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전무한 것은 아니며, 이상의 시 98편에 나타난 시어의 양상과 공기관계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이만식(2013) 정도가 실제로 확인된다.

이만식(2013)에서는 언어 자체를 도외시하여서는 함축된 시 의식을 구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임종국 편 『李箱全集』(1956)에 수록된 이상의 시 98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주요 어휘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신체화된 상상력에 주목하여 주요 어휘 중 [+사람], [+신체], [+소재(所在)]의 의미 자질을 가진 시어를 대상어로 선정하고, Pajek 1.2⁴⁾를 활용하여 공기관계 네트워크를 구축, 분석함으로써 이상의 시 의식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대상어로 선정된 시어로는 ‘거울’, ‘집’, ‘방’, ‘마음’, ‘여자’, ‘아해’, ‘안해’ 등이 있으며, 대상어의 공기관계를 바탕으로 이상의 시 세계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는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통해 이상 시 세계를 분석하고자 한 기념비적인 시도이고, 이상의 시 의식과 표현의 특질을 일정 정도 규명함으로써 이상 시에 나타난 전체적인 통일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4) Pajek은 수십에서 수십만 개에 달하는 노드를 갖고 있는 대규모 네트워크의 분석 및 시각화를 위한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이다. (Batagelj, V., & Mrvar, A. (1998). Pajek-program for large network analysis. Connections, 21(2), 47-57.)

있으나, 형태소를 어떻게 분리하였는지 등의 방법론상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 파일 등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그 외에는 이상 시의 실험시적 성격에 주목하여 김민수(2001)·김민수(2004)처럼 시각 예술적으로 재매개하고자 하는 시도, 디지털 가상 공간과 연관지어 논의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확인될 뿐으로, 이상 문학에 디지털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상 텍스트는 보다 실증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상 문학에 대한 디지털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이상 문학 연구와 전산문학적 연구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추가적인 연구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자 한다.

(4) 문학 감정 분석에 대한 디지털 분석 방법론

문학 작품의 디지털 감정 분석에 대한 고전적인 접근은 감정어 사전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감정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례로 7점 척도의 쾌-불쾌, 활성화, 시간 레이블로 평정한 434개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내에서 일정 단위 시간 간 평균적으로 주되게 지속되는 정서인 지배 정서(dominant emotion)를 추출하고, 한국 근대 단편 소설 43편을 대상으로 유사한 지배 정서를 가진 작품끼리 묶어 분류한 이신영, 함준석, 고일주(2011),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1924)과 윤오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1974)을 대상 텍스트로 형태소를 추출, 정서 단어 데이터베이스에 사상하여 지배적 정서 흐름을 분석한 함준석, 이신영, 고일주(2011), KRpia에서 서비스 중인 『소현성록』을 대상으로, 비록 원문이 아니라 구글 번역기(Google Translate)를 거쳐 영어로 변환한 텍스트이긴 하나, NRC 단어-감정 조합 사전 기반의 감정 분석과 그 의미를 도출해 보고자 한 강우규, 김바로(2018),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에 대해 인간이 직접 레이블링한 감정 데이터를 구축하고 작품 내 감정의 양상과 패턴을 분석하고, 슬픔의 감정이 서사적 변곡점을 형성한다고 논증한 강우규, 김바로(2019)를 예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어 사전 기반의 감정 분석은 맥락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갖는다. 특정 감정어가 모든 문맥에서 동일한 감정적 발출을 표상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소설이나 수필

같이 일정 이상의 분량을 가진 텍스트에서 정서 단어를 추출한다면 어느 정도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배적 정서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함준석, 이신영, 고일주 2011)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한계를 재고하고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시도로 주목받는 접근법이 바로 딥러닝을 활용한 감정 분석 연구이다. 실제로 최근 문학에 대한 디지털 감정 분석은 자연어처리(NLP)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인 실례로 ‘행복(happiness)’, ‘슬픔(sadness)’, ‘놀람(surprise)’, ‘혐오(disgust)’, ‘화남(anger)’, ‘두려움(fear)’의 여섯 범주를 갖는 Ekman의 감정 분류 모델에 ‘수치심(Shame)’을 추가한 Ghazi, Inkpen, Szpakowicz(2015)의 emotion-stimulu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워드 임베딩 기술의 하나인 Word2vec과 GloVe를 사용하여 고전 문학인 동화 『헨젤과 그레텔』(Hansel and Gretel),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Romeo and Juliet), 소설 『검은 고양이』(The Black Cat) 세 작품을 분석하고, 감정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깊이 있는 도서 요약 도출하고자 한 이윤진·전수영(2021), 문학 분야 감정 데이터와 감정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문학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 대해 고심한 김바로, 강우규(2022), 디지털 큐레이션 방안 탐색을 목표로 KOTE(Korean Online That-gul Emotions)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디지털 감정 분석을 수행하고 그 의미를 고찰한 강우규(2022)의 사례를 들 수 있다.

딥러닝을 통한 감정 분석은 문학 텍스트에 적용할 경우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나, 감정어 사전 기반의 감정 분석 방법론과는 달리 어느 정도 맥락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고 대량의 텍스트에 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 외에 셰익스피어(Shakespeare)의 『햄릿』(The Tragedy of Hamlet, Prince of Denmark, 1601)의 텍스트에 표출된 혐오 감정을 복수의 문제와 연관지어 감정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포착한 박소영(2021),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집필된 이 인지의 「혈의누」, 「귀의성」, 「치악산」 상편, 「은세계」를 대상으로 주요 어휘를 추출하고, 텍스트에 감정주체, 감정촉발원과 감정매개를 레이블링하여 ‘공포감’과 ‘슬픔’의 감정을 게피(gephi)를 이용해 시각화하고 그 문학적 의미를 논의한 전성규, 허예슬, 최주찬(2021), 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 아카이브에서 고딕(Gothic), 모험(Adventure), 역사(Historical), 여행(Travel)으로 태깅된 영문 소설 219권의 텍스트에 나타난 지리적 명칭 빈도수를 파악하고 명칭이 포함된 문장을 긍정-부정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대 유럽의 민족-국가 개념의 변천을 시각화하고 감정

의 맥락에서 살핀 임태연, 김새봄, 권소현(2021)과 같이 사회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과 시각화를 강조해 감정 분석을 시도한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3. 연구 프로세스와 방법론

본고에서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감정과 감각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프로세스 및 채택한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개괄할 수 있다.

- 1) 기초가 되는 이상 단편소설 13편 본문 텍스트를 민음사본과 소명출판본을 기준으로 장, 문단, 문장 단위로 나누어 고유타를 지정하여 ID, 작품명, 저자, 필명, 발표지, 발표년월, 발표시기, 장ID, 문단ID, 문장ID, 시점, 서술방식, 텍스트_민음사, 텍스트_소명출판의 14열로 구성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 2) 상기 파일 별도 시트에 ID⁵⁾, 텍스트_민음사, 텍스트_소명출판, 감각어, 품사, 감각의 6열로 구성된 이상 단편소설 문장 단위 감각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렇게 1)과 2)를 통해 구축한 이상 단편소설 텍스트 데이터셋은 두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였다⁶⁾.
- 3) 딥러닝 분류 모델 KcELECTRA와 44개의 감정 분류를 가진 감정 데이터셋 KOTE를 활용하여 딥러닝 감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이상 단편소설 13편의 개별 문장에 대해 KOTE에서 제시한 44개 감정에 대한 감정 수치를 도출하였다.
- 4) 이상 단편소설 텍스트 데이터셋 시트2에 수록된, 2)를 통해 구축한 감각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은 Excel 피벗 테이블(Pivot Table)⁷⁾과 주피터 노트북

5) 1)을 통해 구축한 데이터의 ID와 상동하며, 이상 단편소설 기초 데이터를 감각 데이터와 연결하는 값이다. 이렇게 이상 단편소설 감각 데이터를 별도 시트에 구축한 것은 하나의 ID를 갖는 동일한 문장에 대해 복합적인 감각 레이블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문장은 다양한 감각어를 가짐으로써 여러 감각으로 태깅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필드(field)가 원자값(Atomic Value)을 갖는 형태인 제1정규형(First normal form)으로 정규화하기 위해 별도 시트로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정규화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을 말한다.

6) 추후 Github를 통해 공개

7) 피벗 테이블(Pivot Table)은 광범위한 표를 요약하여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묶어 줌으로써 여러 통계 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통계표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Jupyter Notebook) 환경에서 파이썬(Python)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ipynb(IPython notebooks)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였다⁸⁾.

5) 히트맵(Heat map)을 통한 시각화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에서 파이썬으로 작성하여 ipynb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였다⁹⁾.

데이터셋 구축 과정과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견본을 포함해 추후 ‘이상 단편 소설 데이터 구축’ 부분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또한 감정 분석 프로세스는 KOTE 데이터셋과 BERT(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s)의 파생 모델인 ELECTRA를 한국어 댓글로 학습시킨 모델인 KcELECTRA¹⁰⁾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KOTE(Korean Online That-gul Emotions)¹¹⁾는 50,000건의 한국어 온라인 댓글에 대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으로 5명이 감정 판단을 수행한 250,000건의 데이터셋으로, 각 댓글은 43개의 감정 레이블과 하나의 특수 레이블(‘없음’)로 레이블링되었다. 43개의 감정으로 분류한 것은 단어 임베딩 공간에 표현된 한국 감정 개념을 클러스터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확립한 것이다.

Transformers 라이브러리로 손쉽게 불러올 수 있는 딥러닝 기반 텍스트 분류 모델인 KcELECTRA는 감정 분류 데이터셋인 KOTE를 바탕으로 크게 ‘긍정(Positive)’, ‘부정(Negative)’, ‘중립(Neutral)’의 세 범주로 감정을 분류하고, 세부적으로는 ‘불평/불만’, ‘환영/호의’, ‘감동/감탄’, ‘지긋지긋’, ‘고마움’, ‘슬픔’, ‘화남/분노’, ‘존경’, ‘기대감’, ‘우쭐덤/무시함’, ‘안타까움/실망’, ‘비장함’, ‘의심/불신’, ‘뿌듯함’, ‘편안/쾌적’, ‘신기함/관심’, ‘아껴주는’, ‘부끄러움’, ‘공포/무서움’, ‘절망’, ‘한심함’, ‘역겨움/징그러움’, ‘짜증’, ‘어이없음’, ‘패배/자기혐오’, ‘귀찮음’, ‘힘듦/지침’, ‘즐거움/신남’, ‘깨달음’, ‘죄책감’, ‘증오/혐오’, ‘흐뭇함(귀여움/예쁨)’, ‘당황/난처’, ‘경악’, ‘부담/안_내킴’, ‘서러움’, ‘재미없음’, ‘불쌍함/연민’, ‘놀람’, ‘행복’, ‘불안/걱정’, ‘기쁨’, ‘안심/신뢰’의 총 43가지 감정 분류와 감정의 부재를 나타내는 ‘없음’이라는 분류에 따라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을 분석한다¹²⁾.

통해 참조 가능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피벗_테이블

8) 추후 Github를 통해 공개

9) 추후 Github를 통해 공개

10) GitHub와 Hugging Face를 통해 KcELECTRA 모델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Beomi/KcELECTRA> 또는 <https://huggingface.co/beomi/KcELECTRA-base/tree/main>

11) GitHub를 통해 KOTE 데이터셋을 공개하고 있으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github.com/searle-j/KOTE>

KOTE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감정 분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5] KOTE 감정 분류 표

긍정	환영/호의(welcome), 감동/감탄(admiration), 고마움(gratitude), 존경(respect), 기대감(expectancy), 뿌듯함(pride), 편안/쾌적(comfort), 신기함/관심(interest), 아껴주는(care), 즐거움/신남(excitement), 흐뭇함(귀여움/예쁨)(attracted), 행복(happiness), 기쁨(joy), 안심/신뢰(relief)
부정	불평/불만(dissatisfaction), 지긋지긋(fed up), 슬픔(sadness), 화남/분노(anger), 안타까움/실망(disappointment), 의심/불신(distrust), 부끄러움(shame), 공포/무서움(fear), 절망(despair), 한심함(pathetic), 역겨움/징그러움(disgust), 짜증(irritation), 어이없음(preposterous), 패배/자기혐오(gessepany), 귀찮음(laziness), 힘듦/지침(exhaustion), 죄책감(guilt), 증오/혐오(contempt), 당황/난처(embarrassment), 경악(shock), 부담/안_내킴(reluctant), 서러움(sorrow), 재미없음(boredom), 불쌍함/연민(compassion), 불안/걱정(anxiety)
중립	우쭐댐/무시함(arrogance), 비장함(resolute), 깨달음(realization), 놀람(surprise)

이렇게 구축한 TSV 형식의 문학 데이터와 주피터 노트북으로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한 ipynb 형식의 소스 코드(Source code) 파일¹³⁾ 등의 프로세스적 측면은 깃허브(GitHub)¹⁴⁾로 공개하여 URL을 통해 누구든 접속하여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든 열람할 수 있도록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와 소스 코드를 공개함으로써 디지털인문학이 갖는 장점인 연구 재현성(reproducibility) 차원의 이점을 획책하고,

12) PyTorch Lightning 2.1.2, transformers-4.35.2을 사용하였고, KcELECTRA는 v2021을 사용하였다.

13) 소스 코드(Source code)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Programming Language)를 사용하여 작성한 텍스트 파일을 뜻한다. 작성된 소스 코드는 일반적으로 어셈블러(Assembler)나 컴파일러(Compiler)를 거쳐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기계어(Machine Code)로 변환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참조 가능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소스_코드

14) 깃허브(Github)는 분산 버전 관리 시스템(Distributed Revision Control System)인 깃(Git)의 원격 저장소 호스팅을 지원해 주는 오픈 소스 웹 서비스로, 누구든 탐색하고 기여할 수 있어 주로 개발자들의 협업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참조 가능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깃허브>

이로써 연구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다른 연구자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II. 이상 단편소설 데이터 구축

1. 인문 데이터와 문학 데이터

최근 인문학 연구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괄목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ChatGPT로 높은 인지도를 얻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필두로, 기술적 혁신은 그간 디지털 기술의 외부자로 머물던 인문학자의 합류를 다소 황망할 정도로 재촉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텍스트 분석 방법론과 생성형 인공지능의 연구 활용 방법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학습 열풍은 이제 인문학의 영역에서도 낯설지 않은 바람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인문학 연구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지점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인문 데이터(humanities data)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인문학 연구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접목보다도 우선적으로 숙고되어야 하는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의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담론이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문학 데이터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문학 데이터’는 단순히 원문을 한컴오피스 한글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입력한 HWP 형식의 자료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등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성립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인문학 연구·교육이 디지털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기술과 왜 만나야 하며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문제의식이 인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자발적·주체적으로 제기·논의되지 못하고”(류인태, 2023)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 참고할 만한 구체적인 실례가 부족하다는 것 역시 이유로 들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일말의 불신 역시 작용한다. 문학적 표현을 계량화하는 것 자체가 당초에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주지의 믿음으로 공고한 상황에서, 문학의 데이터화는 대개 어불성설로 불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문학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연어 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진 연구의 일례에서 나온 것으로, 디지털인문학 분야의 문학 연구 전반을 대변한다고 확언하기 힘들다. 디지털인문학적 문학 연구는 단순한 정량적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 등의 정성적 연구를 통한 이중 검증을 거쳐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존의 인문학적 해석에 정량적 근거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인문학 데이터는 어떠해야 하는가? 인문학 데이터는 연구 투명성(research transparency)을 근간으로 한 재현성(reproducibility)과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이 필요하다. 연구 투명성은 연구에 동원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현성은 아카이브 출처와 방법론이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어 다른 연구자로 하여금 재논의가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실험적 재현성(empirical reproducibility)과는 사뭇 의미가 다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접근이 과학적 실험 차원의 재현성과 상동하지는 않지만, 근거를 재조합함으로써 해석의 근거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광의적으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¹⁵⁾. 즉 인문학 데이터에 있어 재현성을 논할 때 지시하는 것은 방법 재현성(methods reproducibility)과 결과 재현성(results reproducibility)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론 재현성(inferential reproducibility)은 인문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특히 논의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¹⁶⁾ 이는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론에 입각한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사용 가능성(reuse potential)까지 고려하여 미가공 데이터(Raw Data), 결과 데이터(Result Data), 소스 코드(Source Code), 도구(Tool) 등을 포괄한 신뢰 가능한 리포지터리(Repository)¹⁷⁾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방법론적 정직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간 인문학 연구에 있어 공개적 데이터 편찬이 곧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바로(2023)에서 지적한바,

15) “Even if this approach never amounted to “reproducibility” in the sense of scientific experimentation, it might still be seen as broadly analogous, since the evidence can be reassembled to see the basis for the explanations that were offered and to test their validity.”(Burrows, 2023)

16) 추론 재현성은 “연구의 독립적 재현 또는 원본 연구의 재분석을 통해 질적으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학자가 다른 연구 및 데이터 세트로부터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거나 분석 결과에 동의하더라도 원본 데이터로부터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 재현성이나 방법 재현성과는 다르다. (It refers to the drawing of qualitatively similar conclusions from either an independent replication of a study or a reanalysis of the original study. Inferential reproducibility is not identical to results reproducibility or to methods reproducibility, because scientists might draw the same conclusions from different sets of studies and data or could draw different conclusions from the same original data, sometimes even if they agree on the analytical results.) (Goodman et al., 2016)

17) 리포지터리(Repository)는 디렉터리 구조를 갖는 자료와 관련 메타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자료 구조를 뜻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참조 가능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저장소_\(버전_관리\)](https://ko.wikipedia.org/wiki/저장소_(버전_관리))

여기에는 ‘문헌 권력’의 작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연구자 간 협업이 주요한 연구 방식으로 부각되는 만큼,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자료 공유가 절실하며, 이러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점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다수의 연구자가 대규모의 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오류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문 데이터는 점차로 강력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고 디지털 분석 방법론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초 데이터 구축

이상 단편소설 속에 나타난 ‘감각(sense)’과 ‘감정(emotion)’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요소를 계량화하여 분석하기 위해 문장 단위로 구성된 기계 가독형(machine-readable) 문학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표 1]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포맷의 단계별 구분¹⁸⁾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미충족포맷 (포털등록불가)	최소충족포맷	오픈포맷	오픈포맷	오픈포맷
특징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URI를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 특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구축한 이상 단편소설 문학 데이터는 TSV¹⁹⁾ 포맷으로, 기계 가독형 데이터 형식

18)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 2019-71호), 2019. 09.04.,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2733

19) TSV는 Tab-Separated Values의 약어로, 탭 문자(\t)를 활용해 항목별 내용을 구분하는 형식을 지닌 텍스트 파일을 뜻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참조 가능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탭_구분_값

중 3단계에 해당하는 CSV²⁰⁾ 포맷의 구분자(delimiter)를 ‘쉼표(.)’ 대신 ‘탭 문자 (\t)’로 대체한 포맷이다. TSV 포맷은 상기 기준의 3단계에 해당하므로 구축한 문학 데이터는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이 가능한 오픈 포맷의 특징을 가진다.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상 단편소설은 총 13편으로, 다음과 같다.

[표 2] 분석 대상 작품 기초 정보

작품	발표연도	잡지	문단 수	글자 수
「地圖의暗室」	1932.3	『朝鮮』	43	10,198
「休業과事情」	1932.4	『朝鮮』	24	10,764
「집팡이轢死」	1934.8	『月刊每申』	7	6,707
「籠籠會豕」	1936.6	『中央』	26	14,028
「날개」	1936.9	『朝光』	136	19,861
「逢別記」	1936.12	『女性』	90	4,573
「童骸」	1937.2	『朝光』	271	15,713
「恐怖의記錄」	1937.4	『每日申報』	109	9,074
「終生記」	1937.5	『朝光』	201	16,016
「幻視記」	1938.6	『靑色紙』	74	5,155
「失花」	1939.3	『文章』	142	8,365
「斷髮」	1939.4	『朝鮮文學』	69	6,147
「金裕貞」	1939.5	『靑色紙』	51	4,339

「地圖의暗室」은 이상이 비구(比久)라는 필명으로 1932년 『朝鮮』에 발표한 첫 단편소설로, 작중 인물 ‘리상’의 하루 일과를 다룬 작품이다. 그러나 텍스트가 담지한 특유의 난해함으로 인해 해석의 합의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작품이기도 하다.

「休業과事情」은 이상이 보산(甫山)이라는 필명으로 1932년 『朝鮮』에 발표한 단편소설로, 주인공 ‘보산’과 이웃 ‘SS’의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이웃인 ‘SS’는 ‘보산’의 마당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높은 위치에서 항상 ‘보산’의 집 마당에 침을 뱉으며, 이는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다. 둘의 대립은 그간 근대-비근대, 문명-비문명, 위생-비위생의 대립으로 해석되어 왔다.

20) CSV는 Comma-Separated Values의 약어로, 쉼표(.)를 활용해 항목별 내용을 구분하는 형식을 지닌 텍스트 파일을 뜻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참조 가능하다.
[https://ko.wikipedia.org/wiki/CSV_\(파일_형식\)](https://ko.wikipedia.org/wiki/CSV_(파일_형식))

「집쟁이轢死」는 1934년 『月刊每申』에 발표된 이상의 단편소설로, 이상이 폐결핵 요양을 위해 황해도 배천온천을 다녀온 이야기를 풀어 낸 것이다. 작품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며, 전반부는 친구 S와 여행지에서 겪은 일을, 후반부는 기차 안에서 겪은 일을 그리고 있다.

「寵寵會豕」는 이상이 1936년 『中央』 6월호에 발표한 작품으로, 무능한 남편과 카페 여급으로 근무하는 아내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식민지 자본주의의 상호 착취적 관계 양상을 ‘거미’와 ‘돼지’의 관계로 형상화하여 풍자한 작품이다.

「날개」는 1936년 9월 『朝光』에 발표된 이상의 단편소설 중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무기력하고 현실 감각 없는 남편과 그런 남편을 사육하다시피 하는 매춘부 아내가 등장한다. 룸펜 인텔리겐차(Lumpen intelligentsia)로 그려지는 남편은 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날을 보내지만, 몇 번의 거듭된 외출을 계기로 폐쇄성에서 탈피하여 비상을 꿈꾼다.

「逢別記」는 1936년 12월 『女性』에 발표된 이상의 단편소설 중 하나로, 제목이 시사하듯 연인 금홍(錦紅)과의 만남과 헤어짐의 기록을 담은 자전적 소설이다. 주인공인 '나'는 폐병 요양을 위해 신개지(新開地) 온천으로 갔다가 기생집에서 금홍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금홍과 '나'는 얼마간의 동거를 하나 일말의 향수로 현재 상황에 불만을 품은 금홍이 가출을 하면서 둘의 관계는 불안정한 양상으로 흐르게 된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와중 '나'는 술자리에서 낯을 통해 금홍의 소식을 듣고 금홍을 찾게 된다. 둘은 낚시를 하고 노래하다 헤어짐을 합의하게 된다.

「童骸」는 이상이 동경에 체류하고 있었던 1937년 2월 『朝光』에 발표한 작품으로, 친구 '윤(尹)'의 아내인 '임(妊)'이 자신의 남편과 닮은 뒤 '나'와 함께 살아보겠다고 하여 같이 하룻밤을 보내지만 다음 날 '임'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남편 '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허탈해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작의 핵심 소재는 유부녀의 부정이다.

「恐怖의 記錄」은 193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每日申報』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장은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파편화된 구성을 취한다. '序章'에서는 '나는 絶對로 내 自身을 輕蔑하지 않고 그 代身부끄럽게 생각하리라는 그러한 心理로 移動하였다'는 자기 고백이 핵심으로 나타나고, '不幸한 繼承' 장에서는 옆집의 닭을 관찰하며 수탉에 동질감을 느끼는 묘사와 아내의 배신으로 인한 친구와의 음주 중 대화 및 심리 상태 등이 나타난다. '醜惡한 貨物' 장에서는 가족과 낡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마지막 '不幸의 實踐' 장은 자신을 고립시킨 채 새로운 삶의 태도를 모색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終生記」는 1937년 5월호 『朝光』에 발표된 이상의 단편소설로, 종생(終生)에 대한 예감을 가진 '이상(李箱)'이 자신에게 연정을 고하던 '정희(貞姬)'가 실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幻視記」는 구본웅이 창간한 『靑色紙』(1938.6)에 수록된 이상의 단편소설로, 실제 집필 시기는 대략 종생기와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幻視記」에는 신여성 '순영'과 그를 연모하는 '나'의 친구 '송 군'이 등장하는데 둘은 이상이 경영하던 카페 쓰루(鶴)의 여급이었던 권순옥(權順玉)과 매일신보 기자를 역임한 정인택(鄭人澤)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상은 허구를 첨가하여 세 사람의 삼각관계와 '순영'을 '송 군'에게 보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失花」는 이상 사후 『文章』(1939.3)에 유고 형태로 수록된 단편소설로, '나'가 연모하나 부정을 일삼던 여인 연(妍)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동경에서 집필된 작품으로, 이상 문학의 종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斷髮」은 이상 사후 『朝鮮文學』(1939.4)에 유고 형태로 수록된 단편소설로, 주인공 '연(衍)'이 친구의 여동생인 '소녀'와 동반 자살을 꿈꾼다. 그러나 여동생의 친구와 연인이 되어 동경행을 택한 연의 친구는 친구인 연에게 동생을 부탁한다. 이후 연 역시 일본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이 본작의 줄거리이다.

「金裕貞」은 이상 사후 『靑色紙』(1939.5)에 유고 형태로 수록된 단편소설로, 이상은 김기림, 정지용, 박태원, 김유정 각각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소설을 집필할 예정이었는데 이 작품은 그중 이상의 절친한 친우이기도 했던 소설가 김유정을 주인공으로 하여 쓴 작품이다. 줄거리는 간단하여 '나'가 'B', 'S', '김유정'과 함께 술을 마시고 드잡이를 하다 경관에게 경고를 듣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의 첫 소설인 「十二月十二日」(1930)의 경우 중편소설로 분량상의 차이로 인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황소와독개비」(1937)의 경우 이상의 작품이 확실한 지에 대한 이견²¹⁾이 있을 뿐 아니라, 동화라는 장르 특성으로 인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恐怖의記錄」(1937)은 연구자에 따라 수필로 분류하기도 하나, 본래 이상 단편소설은 수필과 소설의 경계에 위치하여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정본 이상 문학전집』에서는 소설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편집자의 분류를 따랐다. 이상 단편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문학 데이터 샘플은 다음과 같다.

21) 홍수현(2004)

[표 3] 이상 단편소설 데이터 샘플

ID	작품명	저자	필명	발표지	발표년월	발표시기	장ID	문단ID	문장ID	시점	서술방식	텍스트_민음사	텍스트_소명출판
1	날개	이상	李箱	『朝光』	1936.9	생전		1	1	1인칭	서술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를 아시오?	『剝製가되어버린天才』를 아시오?
639	休業과事情	이상	甫山	『朝鮮』	1932.4	생전		1	1	1인칭	서술	삼 년 전이 보산과 SS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들어앉아 있었다.	삼년전이보산과SS와 두사람사이에 끼워들어안저잇섯다
829	집팽이 轆死	이상	李箱	『月刊海申』	1934.8	생전		2	7	1인칭	서술	반찬이 열 가지나 되는데 풋고추로 만든 것이 다섯 가지—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반찬이 열가지나되는데 풋고초로만든것이다섯가지—내마음에꼭들었습니다
1455	寵寵會 豕	이상	李箱	『中央』	1936.6	생전	2	25	589	1인칭	서술	거미내음새는—그러나이십원—내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거미내음새는—그러나二十원을요모조모금물르던그새금한지페내음새가참그윽할뿐이었다
1477	逢別記	이상	李箱	『女性』	1936.12	생전	1	1	1	1인칭	서술	스물세 살이오.—	스물세살이오—
1659	終生記	이상	李箱	『朝光』	1937.5	사후		1	1	1인칭	서술	극유산호(卻遺珊瑚)—요 다섯 자 동안에 나는 두 자 이상의 오자를 범했는가 싶다.	卻遺珊瑚—요 다섯字동안에 나는 두字以上の誤字를 犯했는가싶다.
2118	斷髮	이상	李箱	『朝鮮文學』	1939.4	사후		7	16	1인칭	대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연(衍) 씨를 욱허니까 어디 제가 고쳐 디리지요.	「세상사람들이 모두 衍氏를 욱허니까 어디 제가 고쳐디리지요.

기본적으로 문장 단위로 행을 입력하였으나, 텍스트 감정 분석에 동원한 딥러닝 모델인 KcELECTRA는 max_len이 512로, 한 번에 최대 512자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제약을 갖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의 문장을 여러 행에 나누어 입력한 경우가 3건²²⁾ 있다.

22) 먼저 아래 문장은 「休業과事情」에서 발췌한, 민음사 판본 기준 549자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ID 값 813, 814 두 행에 걸쳐 입력하였다.

“잉크와 펜 원고지에 적히는 첫 자가 오자로 생겨 먹고 마는 것을 화를 내는 것 잡히지 않는 보산의 마음에 매어달려 대롱대롱하는 보산의 손이 종이를 꼬깃꼬깃 구겨서는 마당 한가운데에 핵 내어던진다는 것이 공교스러이도 SS가 오늘 아침에 배알아 놓은 침에서 대단히 가까운 범위 안에 떨어지고 만 것이 보산을 불유쾌하게 하여서 보산은 얼른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가서는 그 구긴 종이를 다시 집어서는 보산이 인제 이만하면 적당하겠지 생각하는 자리에 갖다 떡 놓고 나서 생각하여 보니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라 갖다가 놓은 것이라 보산의 이 종이에 대한 본의를 투철치 못한 위반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러면 이것을 방 안으로 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버려 보는 수밖에 없다 하여 그렇게 이번에는 하고 하여 보니 너무나 공교스러운 일에 공교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것은 이것도 공교스러운 일인지 아닌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 것쯤은 그대로 내어버려 두어도 관계치 않고 우선 이것을 내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고쳐 하는 것이 없는 시간에 급선무라 하여 자꾸 해도 마찬가지로 고쳐 해도 마찬가지였다.”

아래 문장은 「집팽이轢死」에서 발췌한 민음사 판본 기준 608자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ID 값 831, 832로 두 행에 걸쳐 입력하였다.

“나는상에 노힌송아지고기를다먹은뒤에 냉수를청하얏드니 아주머니가 손소가저오는지라 죄송스럽다고그리닛가 이냉수한지게에 오전하는줄은 김상이 서울살아도-서울사닛가 물으리라고그리길내 그것은쏘엿째서 그렛케냉수가같이빗싸냐고그렛드니 이온천일대가 어디를파든지 펄々썰는물밭게는 안숫는하느님헌데 죄바든쌍이되여서 냉수가먹고십흐면 보통갓흐면거저주는온천물을 듨씩길어다가 잘식혀서 냉수를만들어서먹을것으로되 疏黃내음새가뭍씨나는고로 서울서수도물만출씩< 마시고살아오든손님들이 짝질색들을 하는고로 부득이지게를지고한마장이나 넘는정거장까지 냉수를한지게에오전식을주고사서 길어다먹는데 넘우거리가멀어서물통이 좀새든지하면 오전어치를사도오전어치밭게못어더먹으니 세음을짜지고보면 이냉수는한대접에 일전식은바다야경우가 올흔것이아니냐고 아주머니는그리는지라 그것참수고가만흐시다고 그럼이냉수는특별이 조심< 하여서 마시겟다고그렛드니 그렛치만냉수는 얼마든지거저들일것이니 녀며말고쫄씩< 먹으라고그리는말을 듯고서야 S와둘이비로소마음늦코 벌덕< 먹엇습니다”

아래 문장 역시 「집팽이轢死」에서 발췌한 민음사 판본 기준 1,198자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ID 값 861, 862, 863에 세 행에 걸쳐 입력하였다.

“내가너무 『모나리사』 만을 바라다보닛가 마즌편에안젧는 향나적삼을 닦은비둘기가 참뭇난사람도다만타는듯이 내얼골을보고 나는그까짓일에 붓그러워할일은 아니닛가 막 『모나리사』를 보고십흔대로보고 『모나리사』는 내얼골을 보는 비둘기부인을 쫄쫄조소하는듯이 바라보고 들어누어잇는 밧갓비둘기가 가만히보닛가 건너편에 안저잇는 『모나리사』가 자기안해를 그렛케 업슨역여보는것이 마음에 좀흡족하지못하여서 화를내이는 기미로 벌덕날어나안는바람에 들어눅느라고버서노흔구두에발이잘들어맛지안아서그만양 말로담배쌍다리를뺄을것을 S가보고 싱그레웃으닛가 나도그눈치를채이고 S를향하여야마 조심그레우섯드니 그것이대단이실례행동갓고 쯔한편으로무슨음모나아닌가 펍수상스러워서 저편에안저잇는금시계줄과 진흙무든흰구두가 눈을쫄그렛케쓰고 이쪽을노려보닛가 당겟장수할머니는쏘이쪽에무슨괴변이나 나지안앗나해서 역시눈을두리번< 하다가아모일도업스닛가 싱겨워서 눈을도로그마즌편의 금시계줄로 움겨 노홀적에 S는보든신문을

그 외에, 구두점이 생략된 경우가 빈번한 텍스트 특성상 해석자 간 이견이 갈리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이는 연구자가 직접 전체 텍스트를 읽으면서 종결 어미를 기준으로 문장 단위 분리를 수행하였다.

3. 감각 분석 데이터 구축

기초 데이터 구축 후 감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전체 단편소설을 문장 단위로 읽어 나가며 문장에 포함된 감각어를 판별하고, 별도의 시트(sheet)에 다음과 같이 감각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때 감각 판단은 지각 동사와 감각 명사, 감각 형용사 유무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지각 동사란 주체가 감각 기관으로 자극을 인지하는 행위 동사를 말한다(정유진, 강범모, 1999). 지각 동사 ‘보다’, 청각 동사 ‘듣다’, 후각 동사 ‘맡다’, 미각 동사 ‘맛보다’, 촉각 동사 ‘느끼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바라보다’, ‘들여다보다’ 등의 동사는 마찬가지로 보다류 동사로 판단하여 지각 동사로 간주하였으며, ‘느끼다’의 경우 촉각 이외의 감각에 대한 지각을 포괄하기도 하므로 연구자가 문장을 개별적으로 읽고 판단하였다.

감각 형용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을 형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첫 번째 의미를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은진(2011)의 논의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지침을 바탕으로 사전에 기재된 어휘의 첫 번째 의미를 중심 의미로 간주하고, 어휘의 중심 의미에 따른 감각 판단을 수행하였다.

척척접어서 인생관가방속에다가집어넣트니 정식으로 『모나리사』와 비둘기는 어느편이 더어엿썩가를판단할작정인모양으로 안경을바로잡드니 참세계에이런기차는 다시업스리라 고한마데하닛가 비둘기와 『모나리사』가 S쪽을일시에보는지라 나는또창밖갓 눈속에 허수아비갓흔황새가 한마리나려안젓스니 저것좀보라고 소리를질넛드니 두미인은또일시 에시선을나잇는창밖갓호로 옮겨보았는데 결국아모것도 보히지안닛가 싱그레우스면서 내얼굴을한 번식보드니 『모나리사』는생각난듯이 곁해 『비프스테이크』 갓흔밖갓어룬 의기름씨흙은코잔등이 근처를 한번 들여다보는것을본나는 속마음으로 참앗갑도다 그 렷게생각하고있는데 S는 무슨생각으로앗랬는지 개발에편자라는말이잇지안냐고그리 면서 나에게해태한개를주는지라 성냥을그어서불을부치려닛가 내곁해안젓는갓쓴해태가 성냥을좀달나고 그리길내주엇드니 서울서주머니에너허가지고간『카페』석냥이되여서이상 스텝다는듯이 두어번두집어보드니 집고들어온 길고도굵은 얼는보면 몽둥이가튼 집행이 를 방해안되도록한쪽으로치워노려고노차마자 췌크게와직근하는소리가나면서 그길다란 집행이가 간데온데가업습니다”

(1) 표준국어대사전(편찬 지침 다의어 뜻풀이 배열 4번)

다의어는 기본 의미를 우선 제시하고 그것에서 변진 뜻의 순으로 배열한다. 기본 의미와 맺는 관련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널리 사용되는 것을 우선 제시한다.

다만 어휘의 첫 번째 의미가 “볶은 깨, 참기름 따위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인 ‘고소하다’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복합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연구자가 직접 문맥을 살펴 판단하였다. 또한 ‘느낌’의 경우 전체 감각을 포괄하는 감각 명사로 보고 연구자가 문맥을 살펴 구체적으로 어떤 감각을 형용한 것인지 직접 판단하였다. 다음은 감각 계층을 설정하기 위해 참조한 최현배(1987)의 감각 분류이다.

[표 5] 최현배(1987)의 감각 분류

시각적	빛(色)		검다, 희다, 푸르다, 누르다, 붉다
	별(光)		밝다, 어둡다
미각적	달다, 쓰다, 시다, 떴다, 짜다, 맵다		
청각적	소리(音)		시끄럽다, 고요하다
	가락(調)		높다, 낮다
후각적	지리다, 비리다, 냅다		
촉각적	누름(壓覺)		미끄럽다, 맨지럽다, 까끄럽다, 거칠다, 날카롭다, 둔하다, 무디다, 단단하다, 연하다, 굳다, 무르다, 무겁다
	따뜻하기(溫度)		차다, 덥다, 뜨겁다, 춥다, 시원하다, 따듯하다, 신선하다, 미지근하다.
	아픔(痛覺)		아프다, 따갑다, 쓰리다.
	기타(其他)		가렵다, 간지럽다.
평형감각	어지럽다		
유기감각	답답하다, 아니꼽다, 뼈근하다, (오줌) 마렵다, 고프다, 부르다.		
시간공간감각	시간		빠르다, 더디다, 지리하다, 급하다, 늦다, 이르다, 늦다.
	공간	뜨기(距離)	멀다, 가깝다.
		물형(物形)	크다, 작다, 길다, 짧다, 좁다, 둥글다, 모나다, 바르다, 비뚤다, 비뚜름하다, 곧다, 굽다.
		상하(上下)	높다, 낮다, 깊다, 얕다, 돈다, 뽕족하다, 움푹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현배의 감각 분류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총 4개 계층의 감각

분류를 설정하였다.

[표 5] 감각

1차 감각	2차 감각	3차 감각	4차 감각	
신체/심리	외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내부	피부감각	촉각	
			온도각	
			통각	
		평형		
				유기

1차 감각은 신체 감각과 심리 감각으로, 전자는 신체적으로 지각하는 통상적인 감각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하고 후자는 신체적으로 지각되는 것이 아닌 심리적으로 지각되는 감각을 말한다. 2차 감각은 감각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인지 또는 신체 내부에 대한 지각인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3차 감각과 4차 감각은 개별 감각으로 기본적으로 최현배(1987)의 분류를 따랐으나 ‘촉각’의 상위 범주로 살갓이 외부 환경에 연함으로써 발생하는 ‘피부 감각’을 설정하고, 기존 ‘누름(壓覺)’의 범주에 해당하는 감각을 일괄 ‘촉각’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기타(其他)’에 해당하는 ‘간지러움’의 감각을 통각으로 망라하였는데 이는 간지러움을 신체상 불편함의 한 양상으로 간주한 임윤정(2019)을 따른 것이다.

압각의 경우, 중력으로 인해 신체 내부 근육에 자극을 주어 근육에서 감지되는 감각이므로 촉각 형용사 범주로 보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나, 압각 역시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 수용의 한 종류이므로 외부_피부감각의 하위분류로 분류하였다.

‘빠르다’, ‘멀다’, ‘높다’, ‘크다’와 같은 형용사로 표상되는 시공간감각은 시각으로 간주되기도 하나, 이를 감각이라 하기보다는 개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따라 본고에서는 감각으로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감각어로 분류된 어휘는 총 502개 어휘로 시각어 203개 어휘, 청각어 52개 어휘, 후각어 20개 어휘, 미각어 20개 어휘, 피부감각어 171개 어휘(촉각어 57개 어휘, 온도각어 69개 어휘, 통각어 53개 어휘), 평형감각어 17개 어휘, 유기감각어 37개 어휘로 집계되었다. 다음 표는 이상의 전체 단편소설에 나타난 감각어

목록이다.

[표 6]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감각어 목록

감각				어휘 목록
1차	2차	3차	4차	
신	외	시	각	간과하다, 간파하다, 거무튀튀하다, 건너다보다, 검다, 검은빛, 검정, 견본, 결백하다, 결눈질, 고동색, 고색창연하다, 관망하다, 괄목하다, 광선, 광채, 구경, 구경꾼, 구경하다, 굽어보다, 근시, 기웃거리다, 까말다, 낙조, 난시, 내다보다, 내다보이다, 내려다보다, 내보이다, 넘보다, 노랑돈, 노랄다, 노려보다, 녹엽, 눈자위, 눈초리, 눈총, 느끼다, 느낌, 다홍, 달빛, 당목하다, 당홍, 도색, 돌아다보다, 돌아보다, 두리번거리다, 두리번두리번하다, 둘러보다, 들여다보다, 들여다보이다, 뜨이다, 맹목적, 명월, 목도하다, 무시하다, 미명, 바라다보다, 바라보다, 발갈다, 발견하다, 밝다, 백구, 백국, 백동화, 백면서생, 백사, 백일, 백지, 백통색, 번쩍번쩍하다, 벌게지다, 벽, 별빛, 보다, 보이다, 본숭만숭하다, 볼품, 뵈다, 뵈다, 부시다, 불변색, 불빛, 불과하다, 붉다, 붉은빛, 붉히다, 비치다, 빛, 빛갈, 빛나다, 빨갈다, 사팔뜨기, 살피보다, 살피다, 새까말다, 새빨갈다, 새파랄다, 색, 색맹, 색소, 색연필, 색종이, 색채, 생광, 소맥빛, 손색, 시각, 시뻘겋다, 시선, 시야, 안목, 안색, 알아보다, 암시, 암암리, 암중모색, 야맹증, 어두컴컴하다, 어둑어둑하다, 어둠, 어둡다, 어슴푸레하다, 얼굴빛, 업신여기다, 옛보다, 옛보이다, 우매, 우매하다, 우중충하다, 원광, 원망하다, 월광, 윤택, 은광, 이색, 일견, 저물, 적빈, 적수공권, 주관적, 지키다, 진홍색, 질다, 찬란하다, 창공, 창백하다, 창산, 창연하다, 청년, 청산, 청춘, 쳐다보다, 쳐다보이다, 초췌하다, 출색, 칙칙하다, 침침하다, 감감하다, 검검하다, 쾌활하다, 켩하다, 투시, 투시하다, 파랄다, 파래지다, 파르스레하다, 파리하다, 퍼렇다, 표백, 푸르다, 한눈팔다, 해반죽룩하다, 허열

			다, 현란하다, 혈색, 형안, 혼도, 혼도하다, 혼란하다, 혼사, 혼수, 흥발, 흥안, 흥조, 흥차, 화려하다, 환각, 환하다, 활연하다, 황금, 황모, 황포차, 황혼, 황홀하다, 회색, 흰하다, 흑색, 흑판, 흘겨보다, 희다, 희멀겑다, 흰빛
	청각		감각, 경청하다, 고성, 고요하다, 곧이듣다, 곧이들리다, 기성, 기적, 기척, 노랫소리, 대갈일성, 뒤법석, 듣다, 들리다, 말소리, 목소리, 묵묵하다, 물소리, 발성, 발소리, 발음, 방청하다, 사이렌, 소란하다, 소리, 소조하다, 수선, 숨소리, 시끄럽다, 아늑하다, 알아듣다, 야단, 야단법석, 야단스럽다, 엇듣다, 요란하다, 우렁차다, 울리다, 울음, 음성, 음향, 잠잠하다, 쟁쟁하다, 적막하다, 적멸, 조용하다, 종소리, 청각, 큰소리, 포성, 한적하다, 호곡
	후각		고약하다, 꼬스르하다, 내, 내음새, 냄새, 냄새나다, 맡다, 방향, 붉다, 비린내, 새금하다, 쉬적지근하다, 약취, 유취, 지각하다, 찌르다, 체취, 향기, 향기롭다, 향수
	미각		고소, 고연, 구수하다, 단것, 달다, 맛, 맛보다, 맛있다, 맵다, 맹탕, 무미건조하다, 성미, 싱겁다, 짹짹하다, 쓰다, 쓰디쓰다, 씹쓸하다, 영성하다, 입맛, 품미
	피부감각	촉각	가볍다, 가뿐하다, 간질간질, 갑갑하다, 거뜩하다, 거추장스럽다, 거칠다, 건조하다, 경기구, 경조부박하다, 경증, 경편하다, 고집, 굳게, 굳다, 긴장, 껄껄하다, 끈기, 끈적, 끈적하다, 나스르르하다, 느끼다, 두껍다랄다, 든든하다, 무겁다, 무게, 무미건조하다, 묵직하다, 미끄럽다, 미끈하다, 배기다, 번지레하다, 보송보송하다, 부드럽다, 살결, 스무드하다, 습기, 안타깝다, 암팡지다, 위압, 육중하다, 윤, 윤택, 의젓하다, 장중하다, 중병, 중압, 중요하다, 지중하다, 척척하다, 체중, 촉각, 촉촉하다, 튼튼하다, 푼더분하다, 황량, 황량하다, 황막하다
		온도각	기온, 냉담하다, 냉수, 냉장고, 냉회, 느끼다, 달다, 덥다, 따끈따끈하다, 따끈하다, 따뜻하다, 떨리다, 뜨겁다, 뜨끔하다, 뜨뜻하다, 미적지근하다, 발열, 백열화하다, 불유쾌하다, 빈한하다, 삭풍, 산뜻하다, 상쾌하다, 서늘하다, 선

				<p>뜩선뜩하다, 선뜩하다, 선뜻하다, 선선하다, 소슬하다, 시원하다, 신열, 싸늘하다, 썩늘하다, 열렬하다, 열성, 열심, 열중, 오한, 온기, 온도, 온돌방, 온순하다, 온아종용, 온천, 유쾌하다, 이글이글하다, 정열, 차다, 차디차다, 찬밥, 척척하다, 체온, 촉각, 촉감, 추상열일, 춥다, 쾌감, 쾌하다, 쾌활하다, 통쾌하다, 한등, 한산, 한심하다, 화끈화끈하다, 활연하다, 후끈후끈하다, 후덥지근하다, 훈풍, 훗훗하다</p>
			통각	<p>가난하다, 가렵다, 간지럽다, 간지르다, 간질간질하다, 간편하다, 거뜬하다, 거북살스럽다, 거북하다, 거추장스럽다, 경편하다, 고민, 고민하다, 고통, 고행, 괴로움, 괴로워하다, 귀찮다, 근질근질하다, 느끼다, 미안하다, 번민하다, 불안, 불안하다, 불편하다, 산비하다, 성가시다, 심통, 심통하다, 쓰라리다, 아늑하다, 아프다, 안녕하다, 안면, 안심, 안심하다, 안일하다, 안전, 안타깝다, 앓다, 인간고, 재난, 저리다, 침통하다, 터지다, 통뽕, 통생, 통절하다, 편두통, 편리하다, 편안하다, 편의, 편하다</p>
	내부	평형	<p>난마, 돌다, 문란하다, 소란하다, 수신, 아뜩하다, 아찔하다, 어지럽다, 어쩔어쩔하다, 음란하다, 진동, 취하다, 현기증, 현란하다, 혼도, 혼도하다, 혼란하다</p>	
		유기	<p>가쁘다, 거북살스럽다, 거북하다, 고단하다, 고달프다, 고생, 고프다, 곤하다, 공복, 끼치다, 노곤하다, 느끼다, 답답하다, 동기, 두근두근하다, 똑딱거리다, 마렵다, 맥박, 메스껍다, 목마르다, 반사운동, 배고프다, 부르다, 불편하다, 산란하다, 싫증, 울렁거리다, 졸리다, 졸음, 찌뿌두둑하다, 취기, 취중, 피곤하다, 피로, 피로하다, 허기, 혼곤하다</p>	

이상 단편소설 감각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ID, 텍스트_민음사, 텍스트_소명출판, 감각어, 품사, 감각 열(column)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표 4] 이상 단편소설 감각 데이터 샘플

ID	텍스트_민음사	텍스트_소명출판	감각어	품사	감각
11	그런 생활 속에 한 발만 들여놓고 흡사 두 개의 태양처럼 마주 쳐다보면서 길 끝까지 걷는 것이오.	그런生活속에 한발만 드러놓고 恰似두 개의太陽처럼 마조 쳐다보면서 길까지 걷는 것이오.	쳐다보다	v	신체_외부_시각
46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三十三번지 十八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조용하다	adj	신체_외부_청각
52	여러 가지 내음새가 나기 시작한다.	여러가지내음새가 나기 시작한다.	냄새	n	신체_외부_후각
192	밥은 너무 맛이 없었다.	밥은 너무 맛이없었다.	맛	n	신체_외부_미각
198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 차를 돌쳐 놓지 않고는 여기저기가 배겨서 나는 배겨낼 수가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도 수십차를돌쳐놓지않고는 여기저기가백여서 나는 백여내일수가없었다.	배기다	v	신체_외부_피부_촉각
347	한 손갈을 입에 떠 넣었을 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냉회와 같이 썩늘하였다.	한수갈을 입에떠넣었을때 그 촉감은 참 너무도 냉회와같이 썩늘하였다.	썩늘하다	adj	신체_외부_피부_온도각
1158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adj	신체_외부_피부_통각
1214	취하기도취하였거니와이것은배가좀너무부르다.	취하기도취하였거니와이것은배가좀너무부르다.	취하다	v	신체_내부_평형
1214	취하기도취하였거니와이것은배가좀너무부르다.	취하기도취하였거니와이것은배가좀너무부르다.	부르다	v	신체_내부_유기
1317	앞이다캄캄하여지기 전에 사부로가씨근씨 근왔다.	앞이다캄캄하야지기 전에 사부로가씨근씨 근왔다.	캄캄하다	adj	심리_외부_시각

1667	나는 일 개 교활한 옵서버의 자격으로 그런 우매한 성인(聖 人)들의 생애를 방청 하여 있으니 내가 그런 따위 실수를 알고도 재범(再犯)할 리가 없는 것이다.	나는 一個 狡猾한 옵서버- 의자격으로 그런 愚昧한 聖人들 의 生涯를傍聽해야 있으니 내가 그런따 위 실수를 알고도 再犯할리가 없는것 이다.	방청하다	v	심리_외부_ 청각
2128	그의 체취처럼 그의 몸뚱이에 붙어다니는 염세주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게으른 성격이요 게다가 남 의 염세주의는 어느 때나 우습게 알려 드는 참 고약한 아 리아옥(我利我慾)의 염세주의였다.	그의 體臭처럼 그의 몸뚱이에 부터다니는 염세주의라는것은 어 디까지든지 게을른 性格이요 게다가 남 의염세주의는 어느때 가 우습게알려드는 참 고약한 我利我慾 의 염세주의였다.	고약하다	adj	심리_외부_ 후각
2193	두 사람은 서로 그 리 부드럽지도 않은 피부를 느끼고 공기 와 입술과의 딱끈한 맛은 이렇게 다르고 나를 시험한 데 지 나지 않았다.	두사람은 서로 그리 부드럽지도않은 피부 를느끼고 공기와 입 술과의 딱근한맛은 이렇게 다르고 나를 시험한데 지나지 않 였다.	맛	n	심리_외부_ 미각
2194	이 방 소녀는 그의 거친 행동이 몹시 기다려졌다.	이방 少女는 그의 거츠른 행동이 몹시 기다려졌다.	거칠다	adj	심리_외부_ 피부_촉각
2272	그는 또 한 번 가슴 이 뜨끔했다.	그는 또한번 가슴이 뜨끔했다.	뜨끔하다	adj	심리_외부_ 피부_온도 각
2345	그 때문에 그는 몹	그때문에그는 몹씨고	고민하다	adj	심리_외부_

	시 고민한다.	민한다.			피부_통각
2399	시계를 들고 송 군의 어지러운 손목을 잡아 맥박을 계산하면서 한밤을 새라는 의사의 명령이다.	시계를들고 宋군의 어지러운손목을잡아 맥박을계산하면서 한밤을새라는 의사의명령이었다.	어지럽다	adj	심리_내부_평형
2439	그러나 그 남국적인 정열이 애타게 목말라서 벌들과 몇 사람의 환자가 화단속을 초조히 거니는 것이었다.	그렇나 그남국적인정열이 애타게목말라서 벌들과몇사람의환자가화단속을초조히 거니는것이였다.	목마르다	adj	심리_내부_유기

4. 감정 분석 데이터 도출

감정은 그 강도, 속성, 문화, 맥락 등에 따라 언어적으로 다채롭게 구체화되므로 그 유형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속성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범주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에크만(Ekman)은 일차 감정으로 기쁨(joy), 슬픔(sadness), 분노(anger), 공포(fear), 놀람(surprise), 혐오(disgust)의 여섯 감정을 들었고, 플루치크(Plutchik)는 감정의 수레바퀴(Wheel of Emotions) 모델에서 에크만의 일차 감정에 기대(anticipation), 신뢰(trust)의 감정을 추가하여 여덟 감정을 기본 감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듯 감정을 분류하기 위한 감정 분류 모델은 여럿이 존재하며, 이러한 모델은 디지털 감정 분석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정한 감정 모델을 활용한 디지털 감정 분석의 장점은 강우규(2022)에서 지적한 대로 감정 판단의 ‘일관성’에 있다. 그간 수행된 문학 감정론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추론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 텍스트 전체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자의성,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텍스트는 특정 감정과 일대일로 사상되지 않으므로 감정 모델의 구축은 역동적인 인간 정신의 조야한 반영에 그칠 뿐이라는 마땅한 반론이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정명중(2018)에서 지적한 것처럼, 감성적 자질은 비가시적 대상이므로 그 표현 양상을 가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형식주의로의 경도라는 비판을 감내하고서라도 임의의 형태를 부여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을 적극 수용한다고 해도, 한국어 문학 텍스트의 감정 분석을 위한 딥러닝 분류 모델은 극히 제한적이며 그마저도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KOTE(Korean Online That-gul Emotions)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KcELECTRA 모델을 사용하는 감정 분류 방식을 그대로 준용하고자 한다. 이는 KOTE에서 채택한 43종의 감정 분류가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을 세밀하게 읽어 내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은 비문학 텍스트에 비해 보다 섬세하게 구분될 뿐 아니라 텍스트의 고유성과 몰입의 측면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방민호(2015) 서문에서 저자는 이상 문학에 대한 치밀한 독해를 하기 이전 “처음에는 강렬한 동류의식 속에서 이상을 읽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동류의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뛰어넘을 수 없는 숙명이 그 주인공에 의해 의식될 때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문학은 비극적일 수 있다는 것, 그의 비극을 비극으로 의식하면서 동류의식과 함께 한없는 연민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식민지시대가 끝난 지 7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질병적’ 의식의 유산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이 숙명적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이광수요, 이상이다.”

상기 인용문에 따르면 동류의식은 다름 아닌 비극적 삶에 대한 동류의식과 연민이다. 즉 저자는 감정적 이입을 통해 이상의 문학에 이입하고 공명한 것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심층적 독해 능력이 부족하던 시기의 독법이라 부연하고 있으나, 독자가 감정적 이입을 통해 문학 텍스트를 읽을 공산이 크다는 것은 쉬이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에 기반한 독해는 재실천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윌리엄스(Williams)는 감정을 사회적 구성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감정을 구조화된 것이면서 동시에 구조화하는 ‘과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따르면 감정은 그 자체로 사회적 효과를 지니는 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이다. 가령 습속화된 감정, 감정 아비투스(emotional habitus)는 비단 개인 내부에 내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언어와 담론을 통해 끊임없이 상황을 해석하고 변형시키는 변혁적인 측면을 갖는다. 전후 한국사회에서 이상이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소환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이상 단편소설에 대한 감정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KOTE 데이터셋과 KcELECTRA 모델을 활용하여 이상 단편소설 데이터를 분석한 프로세스와 결과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6] 문장 단위 딥러닝 감정 분석 결과 샘플

ID	문장ID	분류	텍스트	감정분류	감정수치
161964	3682	恐怖의記錄	생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을 갖지 못한 것을 나는 잘 안다.	불평/불만	0.111835
161965				환영/호의	0.028723
161966				감동/감탄	0.11733
161967				지긋지긋	0.181346
161968				고마움	0.073134
161969				슬픔	0.751575
161970				화남/분노	0.052804
161971				존경	0.029143
161972				기대감	0.128618
161973				우쭐덤/무시함	0.173313
161974				안타까움/실망	0.757985
161975				비장함	0.284714
161976				의심/불신	0.152986
161977				뿌듯함	0.102315
161978				편안/쾌적	0.084804
161979				신기함/관심	0.091793
161980				아껴주는	0.091652
161981				부끄러움	0.225465
161982				공포/무서움	0.025056
161983				절망	0.628967
161984				한심함	0.301623
161985				역겨움/징그러움	0.016335
161986				짜증	0.088838
161987				어이없음	0.123042
161988	없음	0.337381			
161989	패배/자기혐오	0.654773			
161990	귀찮음	0.082975			
161991	힘듦/지침	0.65147			

161992			즐거움/신남	0.042223
161993			깨달음	0.825742
161994			죄책감	0.221074
161995			증오/혐오	0.033164
161996			흐뭇함(귀여움/예쁨)	0.016359
161997			당황/난처	0.131439
161998			경악	0.021078
161999			부담/안_내킴	0.135485
162000			서러움	0.606312
162001			재미없음	0.110629
162002			불쌍함/연민	0.541516
162003			놀람	0.050367
162004			행복	0.111481
162005			불안/걱정	0.264465
162006			기쁨	0.077138
162007			안심/신회	0.106981

상기 표의 “생활, 내가 이미 오래전부터 생활을 갖지 못한 것을 나는 잘 안다.” (『恐佈의記録』, ID:3682)라는 문장과 마찬가지로 이상 단편소설 13편의 문장 각각은 ‘없음’을 포함한 도합 44개의 감정분류와 그 감정의 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0부터 1 사이의 감정수치를 갖는다. 예시로 든 문장에서 가장 높은 감정수치를 갖는 감정분류는 ‘깨달음’(0.825742)이며 그 뒤로는 ‘안타까움/실망’(0.757985), ‘슬픔’(0.751575), ‘패배/자기혐오(0.654773)’, ‘힘듦/지침’(0.65147), ‘절망(0.628967)’, ‘서러움’(0.606312), ‘불쌍함/연민’(0.541516) 등의 감정이 이어진다. 가장 희박하게 집계되는 두 감정은 ‘역겨움/징그러움’(0.016335), ‘흐뭇함(귀여움/예쁨)’(0.016359)이다. 이때 수치가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감정 분류는 사실상 해당 문장에서 포착되지 않는 감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구축된 문학 데이터는 그 분량상 스몰 데이터(small data)에 해당한다. 스몰 데이터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으나, 본고에서는 윤미선(2023)의 “양적으로 많지 않더라도 대상 분야 전문가에 의해서 적합한 의미가 부여돼 통계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유의미한, 공개된 기계가독형 데이터(machine-readable data)”라는 정의를 따른다. 김바로(2019)에서는 스몰 데이터가 대상 분야의 전문가만이 고품질의 스몰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는 대체불가능성을 갖는 이유로 스몰 데이터가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데이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인간의 사유 자체를 데이터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단순히 축적해 놓고 이를 바탕으로 상식 수준의 데이터를 도출하는 것이 십상팔구인 빅 데이터(big data)의 한계점과는 대조되는 지점이다. Hitchcock(2014)이 지적한 것처럼 인문학자들은 빅 데이터의 도래 앞에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 방식을 망각할 필요가 없다. 인문학 연구를 위한 빅 데이터(big data)의 활용 방안을 적절히 성찰해 나가는 것 이상으로 스몰 데이터(small data) 구축을 통한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 작업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인문학자들이 능숙하게 해 온 작업이다. 현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여러 연구자가 협업을 도모한다면 고품질의 데이터를 훨씬 많은 양으로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합심이 개인이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타개할 방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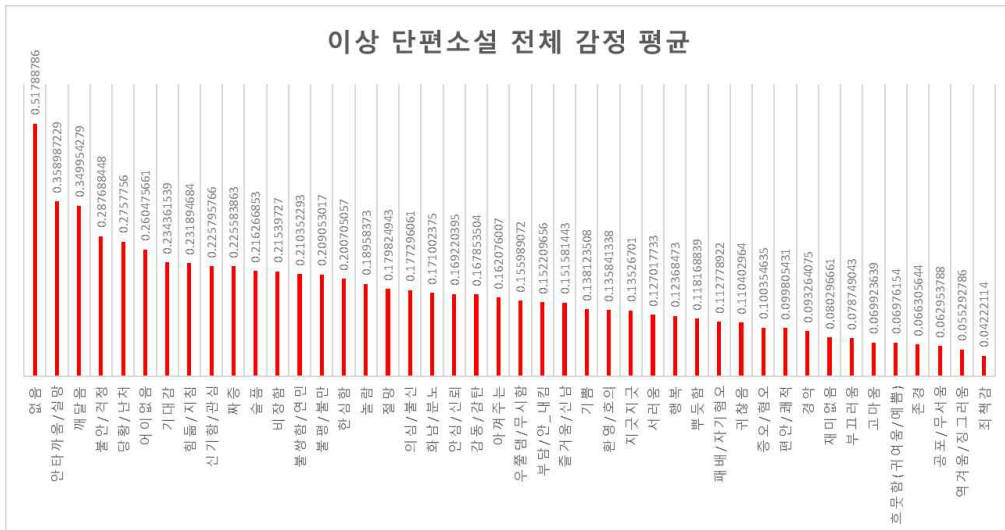
이렇듯 본고에서는 빅 데이터에 비해 규모가 작으나 문학적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게끔 구조화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브워드 분리 분석, 감정 분석, 감정-감각 분석 등의 인문학 데이터 처리(humanities data processing)의 과정을 수행하고 그 문학적 함의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Ⅲ. 디지털 분석 프로세스

1. 전체 작품의 딥러닝 감정 분석

전체 작품의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 딥러닝 감정 분석(Sentiment analysis)을 수행한 결과, 각각의 문장은 KOTE 데이터셋에서 채택한 44가지 감정 분류에 따른 감정 수치를 갖는다. 다음은 이상 단편소설 전체에 나타난 감정 평균을 내림차순으로 정렬,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 이상 단편소설 전체 감정 평균



이상 단편소설 전체 작품에 대한 감정 평균은 ‘없음(0.51788786), 안타까움/실망(0.358987229), 깨달음(0.349954279), 불안/걱정(0.287688448), 당황/난처(0.2757756), 어이없음(0.260475661)’ 순으로 나타난다. 그중 해당 문장에서 특정한 감정을 읽어 내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 ‘없음’을 제외하면,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지배적인 감정으로 ‘안타까움/실망’, ‘깨달음’을 들 수 있다.

이때 ‘없음’이 유독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간결히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상 단편소설이 전반적으로 감정을 절제하거나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죄책감’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게 드러나는 것은 이상 텍스트 특유의 위약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상 텍스트에 나타난 감정 역학을 논할 때 흔히 거론되는 ‘공포’는 지배적이기는커

녕 0.062953788이라는 평균 미만의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이상 텍스트 대부분의 문장에서 공포의 대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불안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느낌인 반면 두려움과 공포는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별”(김왕배, 2019)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표 7] 이상 단편소설 속 0.7 이상의 ‘공포/무서움’을 갖는 문장 목록

ID	작품명	텍스트_민음사	‘공포/무서움’
377	날개	아내에게 돈을 주고 아내 방에서 자 보는 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만일 잘못해서 자정 전에 집에 들어갔다가 아내의 눈총을 맞는 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	0.709449112
474	날개	덜덜덜덜 떨린다.	0.742519617
559	날개	나를 조금씩 조금씩 죽이려 든 것일까?	0.805513501
865	집팽이轉死	또 여러 사람은 웃는데 나만이 웃지 않고 그 지팡이는 이 구멍으로 빠져 달아났으니 요 다음 정거장에서는 꼭 내려서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가라고 이 철독으로 쫓 따라가면 될 것이니까 길은 아주 찾기 쉽지 않으나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니까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러면서 태연자약하게 담배를 뽕뽕 빨고 앉았다가 담배를 다 먹은 다음 담뱃대를 그 지팡이 집어먹은 구멍에다 대이고 딱딱 떠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전신에 소름이 짝 끼쳤습니다.	0.759182394
1134	籠籠會豕	분명히아내가다니고있는R회관은아닌그러나역시그는 그의아내와조금도틀린곳을찾을수없는너무많은그의아내들을보고소름이끼쳤다.	0.853656113
1464	籠籠會豕	쭈 소름이끼치고식은땀이내솟기시작이다.	0.823162436
2062	終生記	공포에 가까운 변신술이다.	0.821503878
2428	幻視記	지난밤에 풀린 아랫도리가 덜덜 떨려 들어왔다.	0.810175955
2489	失花	이 남자가 같이 죽자면 그때 당해서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저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756817281
3208	童骸	나를 살해하기 위한 흥기를 찾는 것일까.	0.816017985
3576	地圖의暗室	너무나 의미를 잃어버린 그와 그의 하는 일들을 사	0.783416152

		람들 사는 사람들 틈에서 공개하기는 끔찍끔찍한 일이니까 그는 피난 왔다.	
3634	地圖의暗室	그는 무서움이 일시에 치밀어서 성내인 얼굴의 성내인 성내인 것들을 헤치고 핵 앞으로 나선다.	0.706328213

실제로 이상 단편소설에서 ‘공포/무서움’이 0.7 이상으로 높게 산출된 문장은 “아내의 눈총을 맞는 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 일이 아니었다”와 같이 대상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두려운 것은 ‘아내의 눈총’(「날개」, ID:377), ‘집팽이 轆死’ 사건(「집팽이 轆死」, ID:865), ‘그의아내와조금도틀린곳을찾을수없는너무많은그의아내들’(「寵寵會豕」, ID:1134)과 같은 분명한 외연을 갖는다.

그러나 공포와 불안의 감정이 완벽히 대별되는 감정이 아닌 이상, 기존에 논의되어 온 이상 텍스트 속 공포 담론 역시 딥러닝 감정 분석 모델을 활용해 ‘불안’의 감정으로 포착할 수 있다. 실제로 이상 단편소설에서 ‘불안/걱정’(0.287688448)은 ‘안타까움’(0.358987229)과 ‘깨달음’(0.34995427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상 단편소설의 평균적인 감정 지분에서 대상 없는 공포(불안)가 차지하는 비중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때 불안의 감정이 갖는 모호한 대상성이라는 특성은 분노나 혐오 등으로 치달는 두려움 군(群)의 감정과 달리 대상에 대한 배제의 권력이 작동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는 ‘불안/걱정’과 다른 개별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살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개별 감정 평균 간 상관관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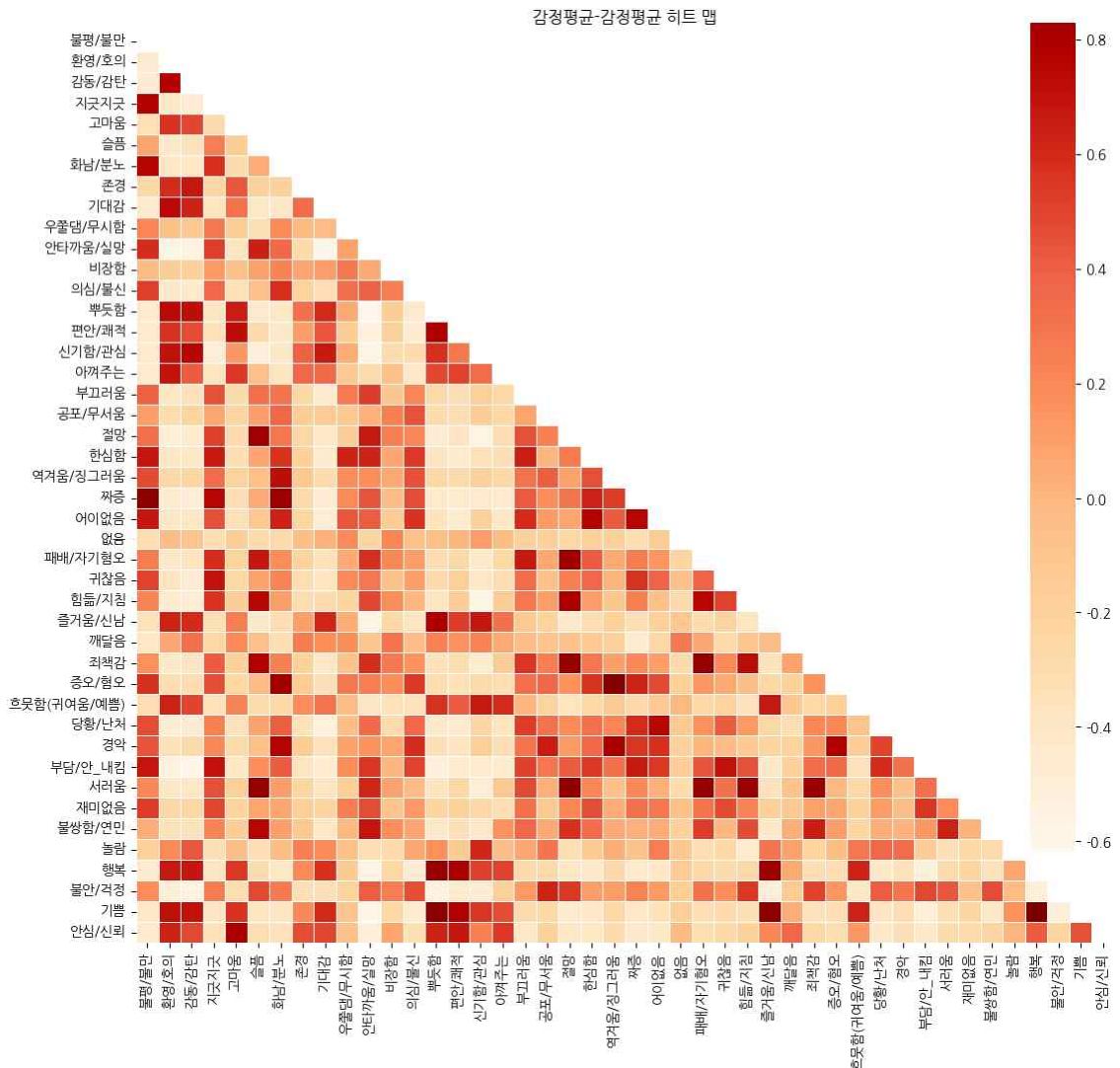
이를 위해 개별 감정 평균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²³⁾를 계산해 다차원 표(Multi-dimensional table)로 정리하였다. 전체 감정 분류가 ‘없음’을 포함해 총 44개이므로 표는 행 머리글과 열 머리글을 포함해 45행 45열이 되어야 하지만, 지면의 한계로 인해 부득이 180행 12열로 작성하였다. 전체 상관관계 표는 ‘부록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PCC)는 두 변수 X와 Y의 선형 상관 관계를 통계학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1에서 1의 값을 가지며, 1에 근접한 값은 변수 간 선형 상관관계가 있음을, 0에 근접한 값은 변수 간 선형 상관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_{XY} = \frac{\sum_i^n (X_i - \bar{X})(Y_i - \bar{Y})}{\sqrt{\sum_i^n (X_i - \bar{X})^2} \sqrt{\sum_i^n (Y_i - \bar{Y})^2}}$$

180행이나 되는 표는 가독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이를 중복 영역을 제거한 삼각형 꼴 히트 맵(heat map)으로 시각화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히트 맵 개별 셀의 수치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그림 2] 이상 단편소설 감정 평균 간 상관관계 히트 맵



상기 표와 그래프에 따르면 ‘공포/무서움’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정은 ‘경악’(0.652744185), ‘불안/걱정’(0.624974914) 그리고 ‘의심/불신’(0.443153074)이다. ‘경악’과 ‘의심’은 특정한 대상을 요하기 때문에, 두려움 군

의 감정인 '불안/걱정'을 제외한 두 감정은 대상성을 가지므로 '공포/무서움'의 상대적 구체성을 방증한다. 반면 '불안/걱정'은 '공포/무서움'(0.624974914)을 제외하면 '절망'(0.54033738)과 '힘듦/지침'(0.549624162), '죄책감'(0.506262923), '슬픔'(0.481520052)과 흡착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불안'이 훨씬 추상적인 맥락에서 나타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흔히 두려움은 대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이어지는 감정 동학을 보인다. 만약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불안'이 이러한 역학을 보인다면 '화남/분노'와 필연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타 두려움 군의 감정 중 '공포/무서움'과 '불안/걱정'이 '화남/분노'와 각각 0.36019101, 0.273142226이라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앞서 언술한 것처럼 대상의 배제를 위한 두려움의 전략화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방증한다.

한편으로 전체 작품에서 '절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감정은 '서러움'(0.894257206), '죄책감'(0.873626668), '슬픔'(0.846948257), '패배/자기혐오'(0.846229286), '힘듦/지침'(0.789992725)이다. '절망'이 '화남/분노'와 0.287033517, '증오/혐오'와 0.163637535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감안하면, 이상 단편소설에서 '절망'의 감정은 서러움과 죄책감, 슬픔, 패배/자기혐오와 연동할 뿐 분노와 같은 변혁을 위한 외향적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절망은 '죄의식'으로 스스로를 징죄하고, '패배/자기혐오'로 자신을 혐오하며, '서러움'과 '슬픔'으로 남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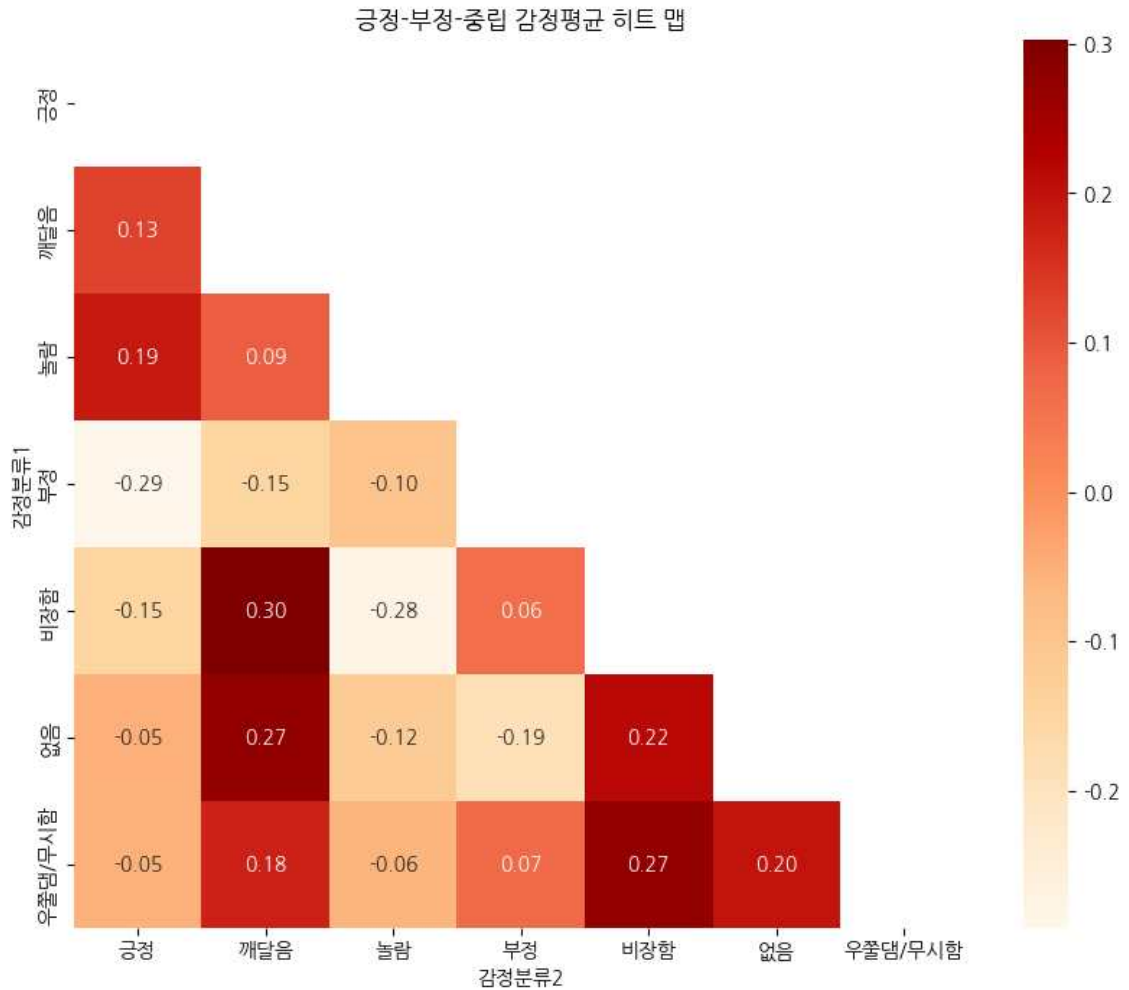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슬픔'과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감정으로는 '서러움'(0.884703791), '절망'(0.846948257), '죄책감'(0.781433246), '힘듦/지침'(0.756465567), '불쌍함/연민'(0.753365)을 들 수 있고, 상관계수가 0.7보다는 낮으나 '불쌍함/연민' 다음으로 높은 '패배/자기혐오'(0.682172493) 또한 주목할 수 있다. 흔히 슬픔은 상실을 전제로 하며, 이때 상실은 "임시적이거나 영구적일 수 있으며, 실제적, 상상적, 물리적,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김왕배, 209p).

그리고 슬픔이 고통과 두려움, 죄책감, 분노 등의 감정을 포괄할 경우 '비애(grief)'가 된다. 이때 비애는 집단적인 감정으로 사회적 효용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슬픔'은 저항의 감정 군이라고 할 수 있는 '화남/분노'(0.04808141) 또는 '증오/혐오'(-0.029514643)와 거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 그저 한없는 서러움과 절망, 죄책감과 연계할 뿐이다. 따라서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슬픔'은 상관성이 높은 감정들과 더불어 '분노가 거세된 비애'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의지가 없는 이러한 슬픔은 '우울'을 연상하게 한다.

자주권을 잃은 조선인은 일제 치하의 '호모 사케르'였다. 그리고 이상의 상실감은 어떤 맥락에서든 정당화도 애도도 될 수 없는 것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치하의 지식인은 그 일말의 기회마저 박탈당했고, 이상의 병리적 불안은 주변과 공유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 애도가 원천 봉쇄된 상황에서 개인은 일체 책임이 그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느낀다. 그렇기에 우울과 자살 충동의 발로는 개연적이다. 지리멸렬한 삶과 죽음 사이에서 이상이 곧잘 죽음을 예단한 것은 주체성을 되찾기 위한 현실적 수단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안타까움/실망'은 전체 작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지만 어떠한 감정과도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안타까움/실망'과 밀접한 상관성을 보이는 감정은 '불쌍함/연민'(0.684631391), '절망'(0.670466379), '슬픔'(0.642952341), '한심함'(0.626885045), '서러움'(0.617639101) 등인데, 이로서 '안타까움/실망'은 크든 적든 부정의 감정과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단편소설에서 '안타까움/실망'이 한 순간 높게 나타나기보다는 다른 부정 감정과 연동하여 부단히 나타나는 지배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립 감정의 하나인 '깨달음' 역시 마찬가지로이지만 깨달음은 '안타까움/실망'과 달리 여타 감정과 높은 상관성을 갖지 않는, 비교적 독립적인 감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긍정 감정 전체를 '긍정'이라는 하나의 레이블로 묶고 부정 감정 전체를 '부정'이라는 하나의 레이블로 묶어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 개별 중립 감정의 평균 값들 간 상관관계를 히트 맵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이상 단편소설 긍정-부정-개별 중립 감정평균 히트 맵



긍정 감정 및 부정 감정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놀람’, ‘비장함’, ‘우쭐댐/무시함’ 등의 중립 감정들과 달리, ‘깨달음’은 개별 중립 감정과 약하지만 괄목할 만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깨달음’은 중립 감정 중 특히 ‘비장함’(0.30), ‘없음’(0.27)과 연합한다. ‘깨달음’이 ‘없음’과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롤랑 바르트가 『기호의 제국』에서 “깨달음은 지식이나 주체를 동요하게 만드는 강력한 지진과도 같다. 그것은 말의 텅 빈 상태를 만들어 낸다.”라고 언술한 것을 연상케 한다. 즉 깨달음은 독자로서 하여금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평을 여는 기능을 수행하고, 이로써 일시적인 ‘감정적 진공’의 상태에 진입하게끔 촉진하는 것이다. ‘비장함(resolute)’과 상관성을 갖는 것은 깨달음이 인식 주체로서 하여금 진실에 대한 확신을 추동하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작품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논의해 보도록 한다.

2. 전체 작품의 감각 분석

제임스-랑게 이론(James-Lange theory)에 따르면 정서적 경험은 외부 자극을 감각함에 따른 신체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 외에도 신체 변화와 정서적 경험의 선후 관계에 따른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신체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에 따라 정서적 경험이 생겨난다고 보는 제임스-랑게 이론과 달리, 캐논-바드 이론(Cannon-Bard theory)은 신체 변화와 정서적 경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들의 핵심은 신체 감각과 감정 간에 긴밀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감정은 육체적 감각을 해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은 나아가 행위를 추동하므로, 이러한 해석을 수행할 때 우리는 생물학적 몸 이상의 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⁴⁾ 감정은 신체적 현존을 전제로 하는, 신체화를 통해 각인된 경험이고 신체와 사회문화적 맥락은 긴밀한 상보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이코프(G. Lakoff)는 추상적 개념 전반이 육체화된 경험에서 파생된 은유를 매개로 나타남을 지적하며 몸 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후설(Husserl)의 관점에 따르면 신체는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닌, 삶이라는 의식이 습윤된 대상이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만 공간적 대상을 지각할 수 있으므로 신체는 대상과의 상호 작용을 위한 하나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 또한 그 지각이 펼쳐지는 시간의 장소는 곧 나의 신체이므로, 이때 나의 신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존재시키는 '기억하는 몸'이 되며, 단순한 사물이 아닌 정신의 표현, 나아가 '심화(心化)된 몸'이 된다. 즉 감각-감정-행위의 연쇄는 개인과 외부 세계가 교류하는 일반적인 도식(scheme)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이 그리는 현실은 시대적 현실이므로, 그 속에 나타난 감각적, 정서적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시대 문제의 징후를 예리하게 포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1930년 『朝鮮』에 『十二月十二日』을 연재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몰년 1937년까지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 나갔다. 즉 이상의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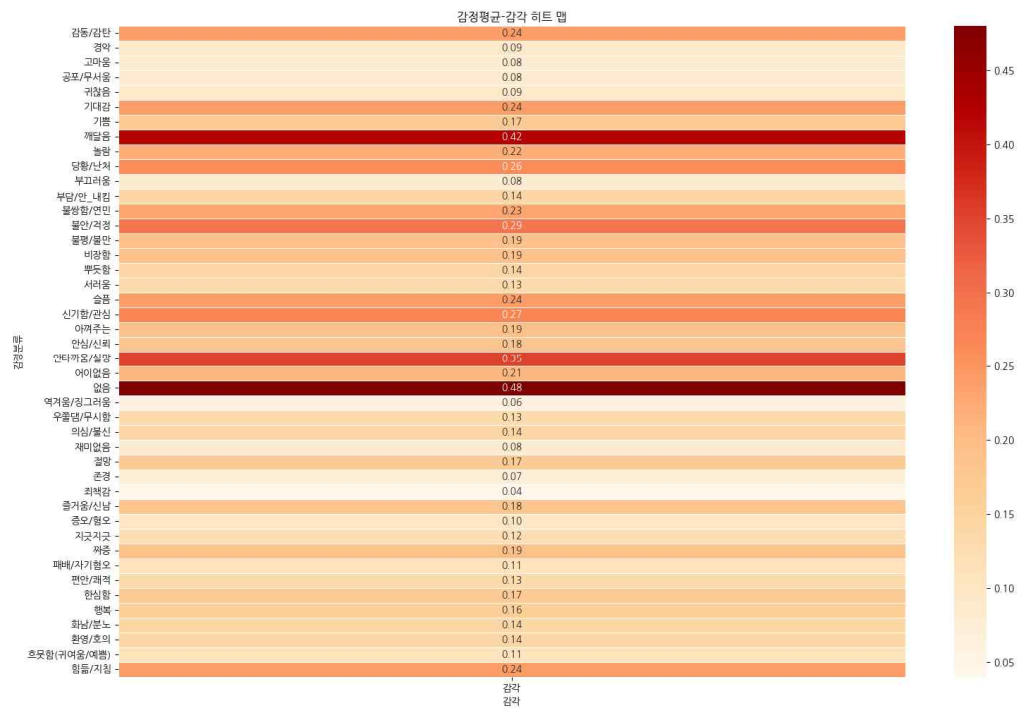
24) 덴진(N. K. Denzin)에 따르면, 생물학적 몸만을 고려하는 것은 몸을 하나의 사물로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Denzin, 1984: 20)

품은 그가 포착한 1930년대 재현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종택(2003)에서 지적한 것처럼, 「날개」를 위시한 이상의 단편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플롯을 견인하기 위한 계기성이 선조적(線條的)이지 않다는 것이다. 되려 단편소설에 등장하는 ‘나’의 외부에 대한 태도는 오불관연(毋不關焉)에 가깝다. ‘나’는 그저 외부를 관조하고 이를 내부에서 반추함으로써 갈무리한다. 이는 감각을 통해 세상을 지각하고 내부적 감정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감각’과 ‘감정’의 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감각 분류를 ‘감각’ 일반으로 통일한 뒤 개별 감정과의 상관관계를 히트 맵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4] 감정평균-감각 상관관계 히트 맵



상기 히트 맵에 따르면 감각 일반과 0.25 이상의 상관관계를 갖는 감정은 ‘없음’(0.48), ‘깨달음’(0.42), ‘안타까움/실망’(0.35), ‘불안/걱정’(0.29), ‘신기함/관심’(0.27), ‘당황/난처’(0.26) 등이다. 이는 이상 단편소설 전체 감정 평균을 높은 순서대로 나열한 ‘없음(0.51788786), 안타까움/실망(0.358987229), 깨달음

(0.349954279), 불안/걱정(0.287688448), 당황/난처(0.2757756), 어이없음(0.260475661)'과 유사한 순서이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깨달음'이 여타 감정 대비 감각 일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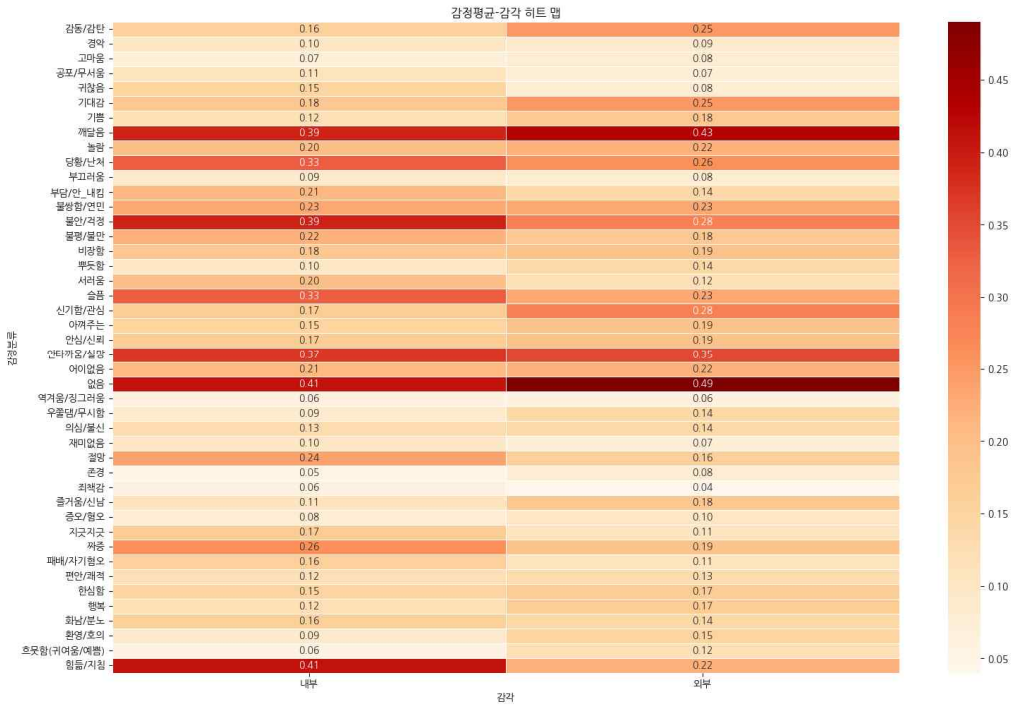
다음은 앞서 구축한 감각 데이터가 갖는 감각 계층 중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신체/심리의 1차 감각과 개별 감정 평균의 상관관계를 히트 맵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5] 감정평균-1차감각 상관관계 히트 맵



1차 감각과 개별 감정 평균의 상관관계에서 특징적인 지점은 '깨달음'의 감정이다. '깨달음'은 심리 감각(0.51)과 신체 감각(0.39) 대비 확연히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이는 '깨달음'의 감정이 육체적인 감각보다는 심리적인 감각과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짐을 시사한다.

[그림 6] 감정평균-2차감각 상관관계 히트 맵



한편 외부 감각과 내부 감각으로 나뉘는 2차 감각과 개별 감정 평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념음’은 내부 감각 대비 외부 감각과 다소 높은 상관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으나 0.04 수준의 차이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신 2차 감각과 개별 감정 평균 간 상관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당황/난처’, ‘부담/안_내킴’, ‘불안/걱정’, ‘서러움’, ‘슬픔’, ‘절망’, ‘지긋지긋’, ‘짜증’, ‘패배/자기혐오’, ‘힘듦/지침’ 등의 부정 감정은 내부 감각과, ‘감동/감탄’, ‘기대감’, ‘신기함/관심’, ‘즐거움/신남’, ‘행복’, ‘환영/호의’, ‘흐뭇함(귀여움/예쁨)’ 등의 긍정 감정은 외부 감각과 상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중 2차 감각에 따라 0.1 이상의 두드러지게 높은 차이를 보이는 감정은 ‘불안/걱정’과 ‘슬픔’, ‘신기함/관심’, ‘힘듦/지침’이다. 각각의 감정은 0.11, 0.1, 0.11, 0.19의 차이를 보이는데, 긍정 감정에 해당하는 ‘신기함/관심’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 감정에 해당한다. 이상 단편소설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불안/걱정’과 ‘힘듦/지침’의 감정이 평형 감각과 유기 감각을 포함한 내부 감각과 상대적으로 유관한 것은 단편소설에 나타난 내부 감각어가 전반적으로 부정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형 감각에 대한 감각어로는 ‘돌다’, ‘아

뜩하다', '아찔하다', '어지럽다', '현기증' 등이 있고, 유기 감각에 대한 감각어로는 '가쁘다', '거북살스럽다', '고단하다', '고달프다', '노곤하다', '답답하다', '메스껍다', '울렁거리다', '피곤하다' 등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는 통상 부정 감정의 함의를 갖고 연합하여 나타난다. '없음'이 외부 감각과 내부 감각 대비 0.08 가량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IV.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1. ‘깨달음’과 에피파니

앞서 ‘깨달음’의 감정은 대부분의 경우 작품의 전체적인 감정 기조인 ‘안타까움/실망’뿐 아니라 여타 감정과도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렇게 KOTE 데이터셋과 딥러닝 감정 분석 모델에 근거하여 이상 단편소설에 대한 감정 분석을 수행할 때, 이상의 텍스트에서 ‘깨달음’의 감정이 여타 감정 추세 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깨달음’의 감정이 여타 감정의 추세와 관계를 맺는 패턴에 따라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는 제임스 조이스의 미학 이론인 ‘에피파니(epiphany)’ 개념을 바탕으로 ‘깨달음’ 감정의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이상 단편소설 13편에 나타난 0.25 이상의 감정 수치 평균을 표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9] 개별 작품별 0.25 이상의 감정 수치 평균

작품명	감정별 감정 수치 평균
「地圖의暗室」 (1932)	없음(0.667728738), 깨달음(0.449504786), 안타까움/실망(0.339830655), 불안/걱정(0.291362656), 비장함(0.281655413)
「休業과事情」 (1932)	없음(0.494120854), 깨달음(0.405092322), 안타까움/실망(0.379718969), 불안/걱정(0.32938946), 비장함(0.306386276), 어이없음(0.271506022), 화남/분노(0.25787409)
「집팽이轆死」 (1934)	당황/난처(0.510124918), 없음(0.421439105), 어이없음(0.389364266), 안타까움/실망(0.363561261), 놀람(0.341654847), 짜증(0.307701977), 깨달음(0.306654633), 신기함/관심(0.299842657), 불안/걱정(0.261499228), 불평/불만(0.257767032)
「籠籠會豕」 (1936)	없음(0.478570211), 안타까움/실망(0.380150349), 어이없음(0.320676612), 짜증(0.317833553), 당황/난처(0.299883944), 불안/걱정(0.291229473), 불평/불만(0.282872025), 깨달음(0.273744942)
「날개」 (1936)	없음(0.470499821), 깨달음(0.400811563), 안타까움/실망(0.356929602), 힘듦/지침(0.30363752), 당황/난처(0.295015174), 불안/걱정(0.287041566), 슬픔(0.264954966)
「逢別記」 (1936)	없음(0.505443746), 깨달음(0.313733949), 안타까움/실망(0.305967025), 신기함/관심(0.29059343), 기대감(0.256012486),

	당황/난처(0.253598736), 아껴주는(0.250643887)
「童骸」 (1937)	없음(0.537800539), 안타까움/실망(0.360000218), 깨달음 (0.332063152), 당황/난처(0.301213699), 불안/걱정 (0.297635606), 어이없음(0.295958817)
「恐怖의記錄」 (1937)	없음(0.485498203), 안타까움/실망(0.41193409), 깨달음 (0.389271), 불안/걱정(0.325802215), 당황/난처(0.291321893), 힘 듦/지침(0.274179273), 어이없음(0.266262193), 짜증 (0.264428399), 슬픔(0.263354495), 불평/불만(0.251821342)
「終生記」 (1937)	없음(0.585236996), 깨달음(0.382652067), 안타까움/실망 (0.340150532), 기대감(0.273803937), 불안/걱정(0.270687226), 비장함(0.264943031)
「幻視記」 (1938)	없음(0.484397017), 안타까움/실망(0.354580569), 깨달음 (0.322698624), 불안/걱정(0.299658824), 당황/난처 (0.287445421), 슬픔(0.266837924), 힘듦/지침(0.251023515)
「失花」 (1939)	없음(0.54188534), 안타까움/실망(0.31612194), 깨달음 (0.288938707), 기대감(0.26543157), 신기함/관심(0.253070312)
「斷髮」 (1939)	없음(0.515970728), 안타까움/실망(0.423257331), 깨달음 (0.400049444), 불안/걱정(0.335839128), 불쌍함/연민 (0.31744375), 당황/난처(0.254668236), 슬픔(0.253666213)
「金裕貞」 (1939)	없음(0.537854983), 어이없음(0.325078631), 안타까움/실망 (0.317166049), 깨달음(0.304121156), 당황/난처(0.290395818), 기대감(0.284640052), 신기함/관심(0.267666674), 짜증 (0.260539109), 불안/걱정(0.258373673)

이에 따르면 이상 단편소설에서 ‘깨달음’의 감정은 ‘없음’을 제외하면 ‘안타까움/실망’과 함께 작품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상 단편소설이 대체로 외부적 사건이 아닌 내면 심리에 따라 전개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깨달음’으로 분류된 감정은 인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면모를 띠며, 에피파니의 순간을 일종의 패턴으로 포착하는 데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

에피파니(epiphany)는 본래 기독교의 주현절(主顯節)을 가리키는 종교적 맥락의 용어로, 기본적으로 ‘뜻하지 않게 사소한 것에서 체득되는 깨달음’을 가리킨다. 이는 제임스 조이스에 의해 전용되어 문학적 용어로 확장되었으며, 영미문학에서 조이스의 미학 이론을 논할 때 특히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조이스는 『영웅 스티븐』

(Stephen Hero)에서 스티븐의 입을 빌어 “에피파니는 사물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SH 211)²⁵⁾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에피파니는 비단 조이스의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많은 작가들이 “표현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에피파니의 효과를 노린다”(박윤기, 2006). 이는 세상에 대한 응답으로서 문학이 갖는 통찰적 성격을 생각하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에피파니는 어떤 측면의 진실을 통찰하게끔 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의 단편소설을 현대의 독자가 읽거나 혹은 이를 상정한 딥러닝 모델을 통해 읽는 경우, 에피파니 개념이 유효한 것은, “에피파니는 등장인물의 인식이나 깨달음이 반드시 전제될 필요는 없”(박윤기, 2017)기 때문이다. “에피파니는 등장인물의 마음 속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실제 에피파니는 인물들의 깨달음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들과의 입장에서 인물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마련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 즉 에피파니는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닌 작품을 읽는 독자들과의 입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 텍스트에서 에피파니는 KOTE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감정 분석에서 어떤 양상으로 포착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2. 타 작품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에피파니’는 일종의 심미적 전략으로 다양한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다. 이상 단편소설에 나타난 에피파니를 살피기에 앞서, 에피파니를 성취한 것으로 이미 판단된 사례를 통해 에피파니 상황의 감정 패턴이 딥러닝 감정 분석 결과 어떻게 도출되는

25) 『영웅 스티븐』에서 작중인물을 빌린, 에피파니에 대한 다양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로 들 수 있다.

“그는 에피파니를 사소한 말투나 몸짓 혹은 마음에 기억될 만한 어떤 것에서 갑자기 정신적인 계시를 주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에피파니-무엇보다도 세밀하며 아주 빠르게 사라져 버리는 순간임을 직감하고서-를 세심하게 기록하는 것이 문학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SH 211)

By an epiphany he meant a sudden spiritual manifestation, whether in the vulgarity of speech or of gesture or in a memorable phase of the mind itself. He believed that it was for the man of letters to record these epiphanies with extreme care, seeing that they themselves are the most delicate and evanescent of moments.(SH 211)

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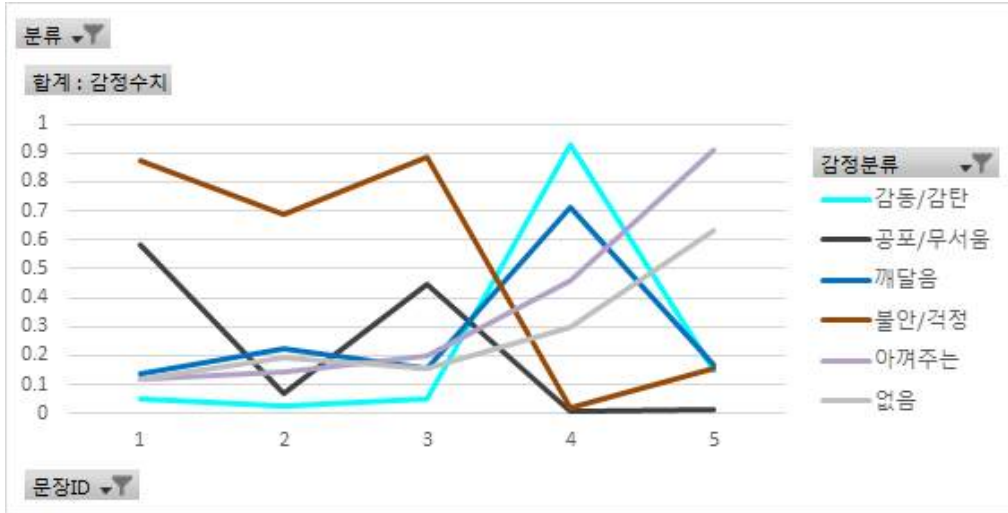
선주원(2009)에 따르면 에피파니는 크게 ‘극적 에피파니’와 ‘서정적 에피파니’로 구분할 수 있다. 서사의 경우 종반에 이르러 작중인물이 돌연히 통찰을 얻는 경우가 많고 시의 경우 사물 또는 이미지가 내면세계의 환기를 찰나적으로 초래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때 문학 장르와 무관하게 에피파니 경험은 은폐된 진실을 개방함으로써 독자 주체를 전율하게끔 만든다. 다음은 서정적 에피파니가 나타난 사례이다.

[표 10] 서정주, 「문」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순간

ID	저자	작품명	텍스트
1	서정주	문	밤에 홀로 눈뜨는건 무서운일이다
2	서정주	문	밤에 홀로 눈뜨는건 괴로운일이다
3	서정주	문	밤에 홀로 눈뜨는건 위태한일이다
4	서정주	문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다운일이다.
5	서정주	문	왕망한 폐허에 꽃이 되거라!

서정주의 「문」은 서정적 에피파니를 극명하게 드러낸 작품이다. 「문」의 화자는 초월성을 담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을 “밤에 홀로 눈뜨는” 것에 비유하며 두려움, 괴로움을 호소한다. 그러나 공포를 느낀 직후 화자가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심미성이다. ‘눈뜨는’ 일은 두렵고 괴로울지언정 아름다운 일이라는 모종의 에피파니를 경험한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청자에게 꽃이 되라고 주문하고 있다. 다음은 「문」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순간의 감정 흐름 양상을 딥러닝 감정 분석을 통해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0] 서정주, 「문」에 나타난 에피파니 순간의 감정 흐름 선 그래프



상기 그래프에 따르면 에피파니 순간의 직전에 부유하는 감정은 ‘불안/걱정’, ‘공포/무서움’이다. 그리고 에피파니의 순간 ‘감동/감탄’과 함께 ‘깨달음’이 고조된다. 그 직후 감정 ‘없음’과 함께 비집고 들어오는 감정은 다름 아닌 ‘아껴주는’이다. 즉 이 사례에서 서정적 에피파니는 ‘두려움 군의 감정’ - ‘깨달음 및 감동’ - ‘아껴주는’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극적 에피파니의 경우도 유사하다. 조이스적 에피파니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극적 에피파니로 간주되는 채만식의 「생명」(1937)에 나타난 에피파니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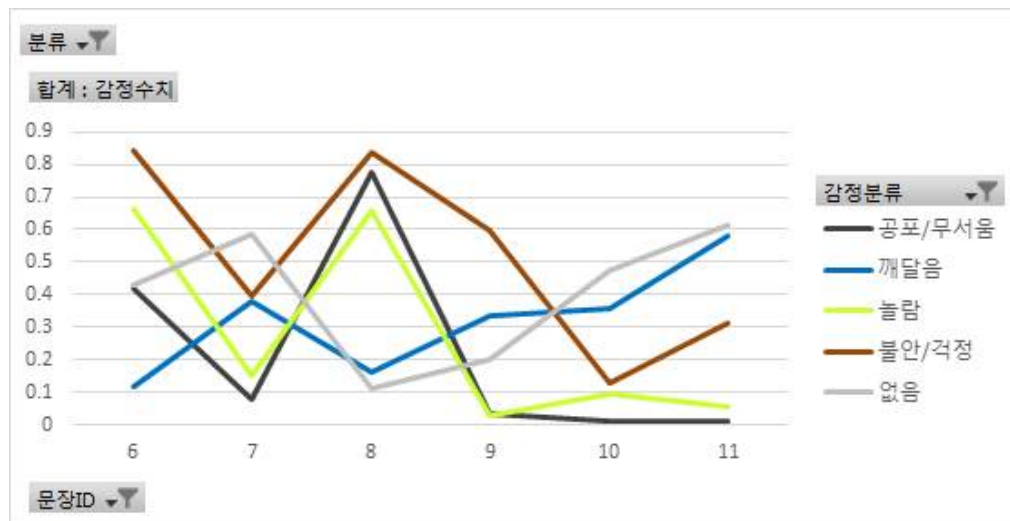
[표 11] 채만식, 「생명」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순간

ID	저자	작품명	텍스트
6	채만식	생명	장승같이 우두커니 서서 있던 아씨는 오월이나 눈이 마주쳤다.
7	채만식	생명	그는 이미 싸늘한 사색(死色)이 내려 핏빛해진 오월이의 눈에서 사무치는 원한의 빛을 보았다.
8	채만식	생명	보고는 무서움에 몸을 부르르 떤다.
9	채만식	생명	오월이는 그때에 벌써 정신이 혼미해서 원망이고 앙심이고 그런 차근차근한 사려를 가질 힘이 없었다.
10	채만식	생명	다만 의미없이 마지막으로 아씨를 한 번 본 것일 따름이다.
11	채만식	생명	그런 것을 아씨는 결리는 데가 있는지라 그렇게 보고 만 것이다.

채만식의 「생명」에서 작중인물 ‘아씨’는 ‘서방님’의 아이를 수태한 여종 ‘오월’을

혹독하게 응징한다. ‘오월’은 ‘아씨’의 거듭된 폭력에 변변히 저항하지 못하면서도 태내의 아이에게 애착을 느끼며 아이를 지키고자 애를 쓴다. 출산이 임박해서도 소리 없이 매를 맞던 ‘오월’은 돌연 출산을 하게 되고, 출산을 마친 ‘오월’과 시선이 마주친 ‘아씨’는 공포를 느낀다. 비록 ‘오월’은 일체 의도 없이 시선을 던진 것이었으나 ‘아씨’는 무심한 시선 속에서 에피파니를 경험하며, 이를 계기로 ‘오월’에 대한 학대를 멈추는 회심을 이루게 된다. 다음은 「생명」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순간의 감정 흐름 양상을 딥러닝 감정 분석을 통해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채만식, 「생명」에 나타난 에피파니 순간의 감정 흐름 선 그래프



이에 따르면 이러한 에피파니 순간의 직전에 포진하는 감정은 ‘불안/걱정’, ‘공포/무서움’, ‘놀람’이다. 그리고 에피파니의 순간 ‘깨달음’이 ‘없음’과 함께 고조되며, 앞서 포진했던 감정 전반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이 사례에서 극적 에피파니는 ‘두려움 군의 감정 및 놀람’ - ‘깨달음’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극적 에피파니의 사례로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1962)의 마지막 장면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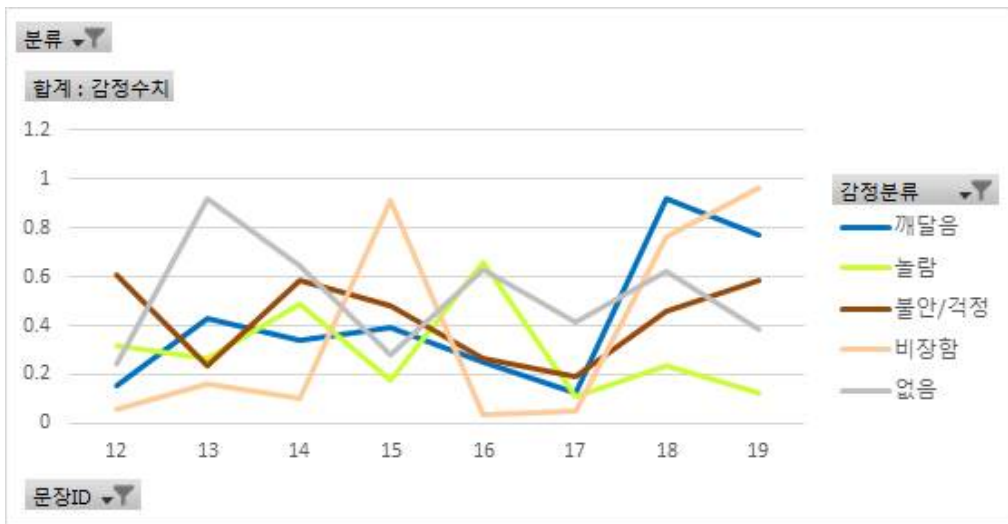
[표 12] 장용학,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순간

ID	저자	작품명	텍스트
12	장용학	원형의 전설	그때 동굴이 와르르! 진동(震動)과 함께 파산을 일으켰습니다.
13	장용학	원형의 전설	동굴 위쪽에 서 있는 거목에 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14	장용학	원형의 전설	밑둘레가 아름 반이나 되는 줄기가 동강이 나는 바람에 지근

			(支根) 하나가 동굴 바로 천장에까지 뻗어 있는 뿌리가 전체로 탈색 했던 것이고, 그 바람에 지난해 떨어지다가 멎었던 그 바위가 마음놓고 떨어지며 침대를 으스스려 놓는 것을 신호처럼 해가지고 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15	장용학	원형의 전설	“아,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16	장용학	원형의 전설	지야의 환희에 찬 소리가, 그 무엇에 홀린 것 같은 이장에게 매달렸습니다.
17	장용학	원형의 전설	이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말은 끝을 다 맺지 못하고, 지야의 타는 입김과 함께 바윗덩이에 부서져버렸습니다.
18	장용학	원형의 전설	“옥(獄)이 깨어지는 것이다! 올 것이 오고 온 것이 무너진 것이다.
19	장용학	원형의 전설	지야, 이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다! 꽃이 지는 것이다! 꽃이 지면…….”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의 등장인물 ‘이장’은 동굴이 무너지며 이복동생 ‘지야’와 같이 죽음을 맞이하는 찰나의 순간에 “올 것이 오고 온 것이 무너”지며 “죽는 것이 아니”라 “꽃이 지는 것”일 뿐이라는 에피파니를 경험한다.

[그림 12] 장용학, 「원형의 전설」에 나타난 에피파니 순간의 감정 흐름 선 그래프



상기 그래프에 따르면 이러한 에피파니의 순간에 앞서 나타나는 감정은 ‘불안/걱정’, ‘비장함’, ‘놀람’이다. 즉 이 사례에서 극적 에피파니는 ‘불안, 놀람, 비장함’ - ‘깨달음, 비장함’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때 ‘비장함’은 에피파니의 순간에도 동시

출현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에피파니의 사례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상기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으로 우선 에피파니의 순간은 감정적으로 공백에 가깝다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이때 ‘깨달음’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집계되는 감정은 ‘감동/감탄’과 ‘비장함’이다. 이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인식 주체의 미학적 경험 또는 확신감을 유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에피파니의 돌발이 있기에 앞서 감정적 분란이 선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선례에서는 부정 감정에 속하는 ‘불안/걱정’, ‘공포/두려움’의 감정과 중립 감정에 속하는 ‘놀람’, ‘비장함’의 감정이 불거진 바 있다.

부정 감정이 대두하는 것은 에피파니가 “극화된 무의식적인 욕망과 좌절, 두려움과 죄의식 등과 주체가 대면하게”(선주원, 2009)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에피파니 순간의 깨달음이 벼락과도 같이 뇌리를 드뭇히려면 그 직전에는 한없이 캄캄한 순간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상기 감정 흐름 선 그래프를 살펴보면, ‘깨달음’ 이전의 지배적 감정은 대체로 ‘불안/걱정’으로 집계되는데, 이는 불안이 비교적 대상성을 띠는 공포 대비 훨씬 막연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에피파니의 광명이 뇌리를 명정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사건에 내재된 의미를 통찰하기 전까지는 현상에 대한 인지적 통합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이때의 미지는 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한편 ‘공포/두려움’은 불안의 대상이 구체화되는 국면에서 격앙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지에서 오는 불안은 구체적인 공포로 전환되며, 공포는 에피파니를 추동한다.

중립 감정에 해당하는 ‘놀람’의 돌출 역시 에피파니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깨달음’은 진부성과는 거리가 멀며 외려 놀라운 직각(直覺)에 가까운 만큼 인지적 도약을 위한 경이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플루치크의 감정 모델(Plutchik's Wheel of Emotions)에 따르면 기본 감정인 ‘공포(fear)’와 ‘놀람(surprise)’이 결합해서 나타나는 이중 감정(Primary dyad)은 다름 아닌 ‘경외(awe)’인데 이를 통해 에피파니 직전에 나타나는 놀람의 감정 양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피파니가 본질을 투시하는 ‘신적인 것(theopany)의 현현’이라면 ‘비장함’의 감정 역시 충분히 ‘깨달음’의 감정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에피파니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조이스와 유사하게 이상 역시 일상의 사소한 사건 속에서 에피파니를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크고 작은 깨달음은 텍스트를 하나의 문제로 포집하는 주동력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에피파니의 순간을 「집팽이轆死」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3. 「집팽이 轢死」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이상의 「집팽이 轢死」(1934)에서 에피파니는 기차에서 발생한 ‘지팡이 분실 및 역사(轢死)’ 사건을 통해 돌연한 감정적 선회와 함께 나타난다. 일순 희문(戲文)의 성격을 띠던 텍스트는 심각성을 담지한 텍스트가 되고 독자는 작중 화자의 갑작스러운 공포심 표출에 의구심을 품게 된다. 이때의 감정 흐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고현혜(2015)에서 에피파니의 순간으로 지목한 문장을 중심으로 ‘깨달음’과 여타 감정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집팽이 轢死」에서 에피파니(epiphany)는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지팡이 역사 사건의 전개 중에 나타난다. 고현혜(2015)에서는 희문(戲文)의 성격이 강한 글을 읽어 나가던 독자들이 말미의 지팡이 역사(轢死) 사건에 이르러 ‘나’가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모종의 통찰에 이르는 에피파니(epiphany)를 경험한다고 분석한다. 즉 해당 사건은 독자로 하여금 기차 승객으로 표상된 식민지 조선인이 무의식적으로 배태한 식민성과 비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일종의 장치로서 기능한다. 지팡이 역사 사건은 구축한 이상 단편소설 데이터 ID 865, 866번에 걸쳐 발생하며, 해당 문장에서 나타난 감정 분류와 수치는 다음과 같다.

[표 13] 「집팽이 轢死」 ID:865-866 문장에 나타난 감정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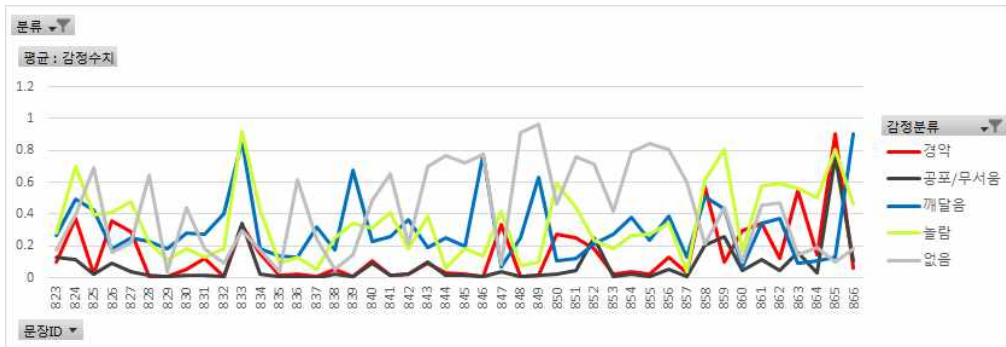
ID	작품명	민음사_텍스트	감정분류	감정수치
865	집팽이 轢死	또 여러 사람은 웃는데 나만이 웃지 않고 그 지팡이는 이 구멍으로 빠져 달아났으니 요 다음 정거장에서는 꼭 내려서 그 지팡이를 찾으러 가라고 이 철독으로 쪽 따라가면 될 것이니까 길은 아주 찾기 쉽지 않으나고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니까 잃어버려도 좋다고 그러면서 태연자약하게 담배를 뽕뽕 빨고 앉았다가 담배를 다 먹은 다음 담뱃대를 그 지팡이 집어먹은 구멍에 다 대이고 딱딱 떠는 바람에 나는 그만 전신에 소름이 짹 끼쳤습니다.	경악	0.905375361
			당황/난처	0.848146677
			화남/분노	0.825485885
			놀람	0.806422353
			공포/무서움	0.759182394

866	집팽이 轢死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때만은 웃을 수도 없는 업신여길 수도 없는 참 아기자기한 마음에서 역시 소름이 끼쳤으리라고 나 는 생각합니다.	깨달음	0.899760067
			감동/감탄	0.830568433

작중 화자는 기차 바닥의 구멍으로 지팡이가 떨어진 것을 인지했음에도 여전히 태연자약한 ‘영감님’의 모습에 “소름이 짝 끼쳤”(ID:865)다고 회고한다. 해당 문장에서 세부 감정은 ‘경악’(0.905375361), ‘당황/난처’(0.848146677), ‘화남/분노’(0.825485885), ‘놀람’(0.806422353), ‘공포/무서움’(0.759182394)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공포심을 느낀 표면적인 이유는 “그 지팡이는 돈 주고 산 것은 아니니까 잃어버려도 좋다”(「집팽이轢死」, ID:865)는 노인의 말과 담뱃대를 구멍에 대고 터는 노인의 행동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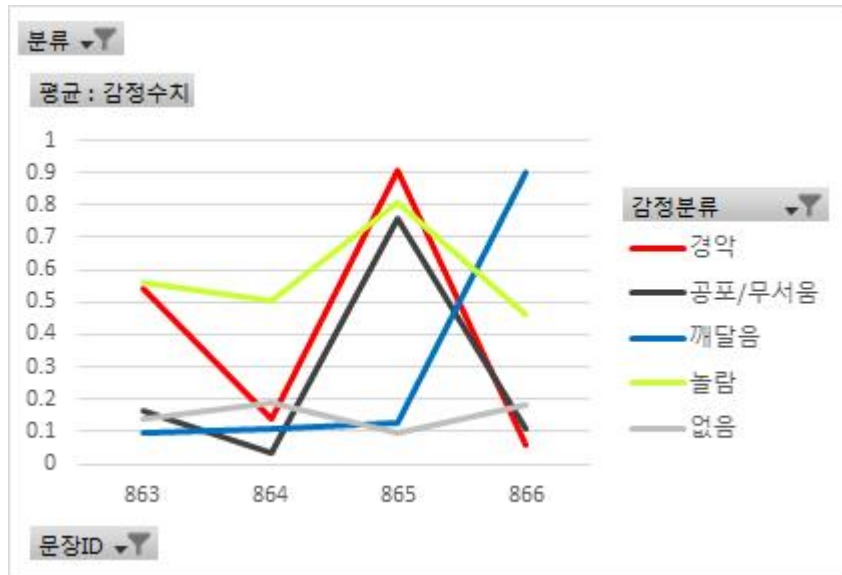
그리고 그다음으로 오는 문장(ID:866)에서 0.7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감정 분류는 다름 아닌 ‘깨달음(0.899760067)’과 ‘감동/감탄’(0.830568433)인데, 이 지점에서 작중 화자는 식민지 근대 한국인 모두가 식민지 소비 자본주의의 지배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깨닫는 에피파니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집팽이轢死」의 텍스트 전체의 감정 흐름도는 다음과 같이 시각화할 수 있다.

[그림 13] 「집팽이轢死」 감정 흐름 선 그래프



상기 감정 흐름 선 그래프에 따르면, 에피파니가 그리고 상기 그래프에서 ‘에피파니’가 발생하는 ID:864부터 ID:866까지의 선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집팽이轢死」 ID:864-866 감정 흐름 선 그래프



상기 그래프를 통해 「집팽이 轢死」의 에피파니의 순간 역시 앞서 살펴본 사례와 유사하게 감정적 고조, 구체적으로는 두려움 군의 감정과 놀람, 경악에 뒤이은 감정적 공백으로 포착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깨달음'의 감정 수치가 0.7 이상인 3개의 문장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4] 「집팽이 轢死」에서 0.7 이상의 '깨달음'이 나타나는 문장

ID	작품명	민음사_텍스트	감정분류	감정수치
833	집팽이 轢死	발동기 소리가 온종일 밤 새도록 탕탕 나는 것이 하릴없이 항구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난다고 S가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한 지계에 오 전씩 하는 질기고 튼튼한 냉수를 길어 올리는 '펌프 모터' 소리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놀람	0.920461953
			깨달음	0.855989516
			신기함/관심	0.778312147
846	집팽이 轢死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러면서 징검다리로도 넉넉한 개천에 놓인 철교를 건너갈 때 같은 데는 제법 흡사하게 기차는 소리를 내일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없음	0.77727598
			깨달음	0.774737
			신기함/관심	0.73168093
866	집팽이 轢死	다른 사람들도 물론 이때만은 웃을 수도 없는 업신여길 수도 없는 참 아기자기한 마음에서 역시 소름이 끼쳤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깨달음	0.899760067
			감동/감탄	0.830568433

상기 문장들에서 ‘나’가 “발동기 소리가 온종일 밤 새도록 탕탕나는 것”이 “한 지계에 오 전씩 하는 질기고 튼튼한 냉수를 길어 올리는 ‘펌프 모터’ 소리”(ID:833)인 것을 깨달거나 “제법 흡사하게 기차는 소리를 내일 줄 아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인지하는 것은 그러나 직전의 감정적 고조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에피파니로 보기는 어렵다. 즉 ‘깨달음’의 감정이 높게 나타난 문장이라고 해서 전부 에피파니의 순간은 아니다. 「집팽이轢死」의 에피파니는 서사의 마지막에서 두려움 군의 감정과 놀람, 경악 등의 감정이 고조되고(「집팽이轢死」, ID:865) 이윽고 깨달음이 정점에 달하면서(「집팽이轢死」, ID:866) 나타나며, 식민지 조선인의 불구적 주체성을 벼락처럼 조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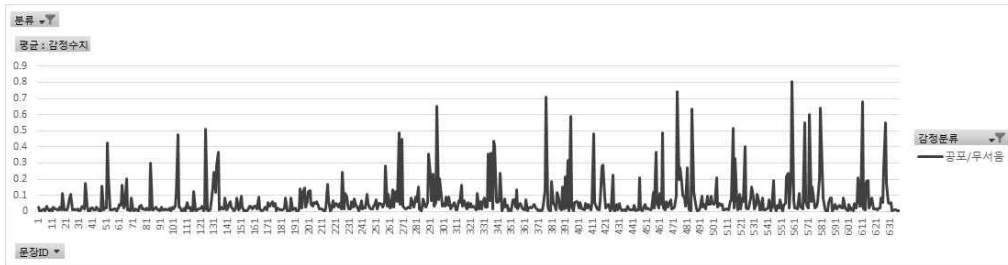
또한 「집팽이轢死」는 딥러닝 감정 분석 결과 이상 단편소설 중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풍부한 작품으로 보인다. 「집팽이轢死」에서 감정 평균이 0.3을 상회하는 감정 분류는 ‘없음’을 제외하면 ‘당황/난처(0.510124918)’, ‘어이없음(0.389364266)’, ‘안타까움/실망(0.363561261)’, ‘놀람(0.341654847)’, ‘짜증(0.307701977)’, ‘깨달음(0.306654633)’으로 총 6개에 달하는데, 「집팽이轢死」를 제외한 다른 단편소설에서는 대체로 2개에서 3개 정도의 감정 분류가 평균 0.3을 상회한 감정 수치를 보인다. 「斷髮」 정도가 예외적으로 0.3을 상회하는 4개의 감정 분류를 보일 뿐이다. 이러한 감정 지표들은 서사 전체에 걸쳐 꾸준히 높은 양상을 보이는 감정들을 시사하는데, 이를 통해 감정상 작품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덧붙여 ‘당황/난처(0.510124918)’의 감정 평균이 감정 ‘없음(0.421439105)’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 단편소설 중 「집팽이轢死」를 제외한 작품 전체에서 감정 ‘없음’이 감정 분류 중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봤을 때 이는 희문(戲文)의 성격을 띤 「집팽이轢死」가 갖는 감정 서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 「날개」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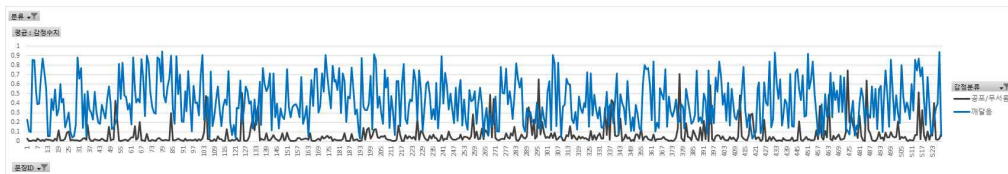
「날개」 역시 「집팽이轢死」와 마찬가지로 서사의 마지막 대목에서 에피파니가 관찰된다. 에피파니의 순간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날개」 전체에 걸친 공포의 감정 흐름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전체 문장에 나타난 ‘공포/무서움’을 감정 흐름 선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7] 「날개」에 나타난 ‘공포/무서움’ 감정 흐름 선 그래프



그리고 다음은 도입부부터 ‘나’의 네 번째 외출(ID:529) 직전까지의 ‘공포/무서움’과 ‘깨달음’의 감정 흐름을 선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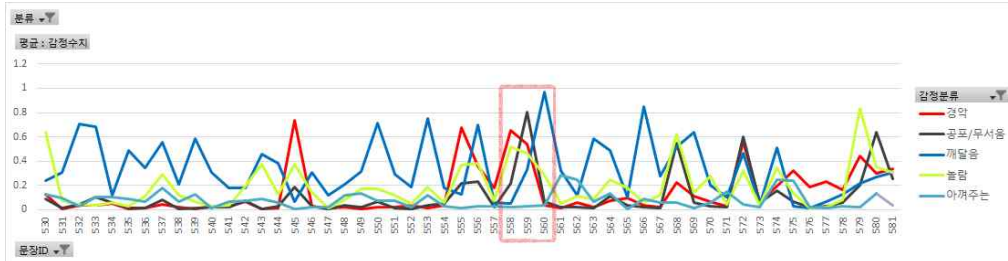
[그림 18] 「날개」 네 번째 외출 이전의 ‘공포/무서움’, ‘깨달음’ 감정 흐름 선 그래프



네 번째 외출을 감행하기 이전에 ‘공포/무서움’이 0.7 이상으로 두드러지는 지점은 “안해에게 돈을주고안해방에서 자보는것은 어디까지든지 좋았지만 만일 잘못해서 자정전에집에들어갔다가 안해의 눈총을맞는것은 그것은 여간 무서운일이아니었다.”(ID:377), “덜덜덜덜 떨린다.”(ID:474)의 두 문장이다. 그러나 두 문장은 깨달음의 고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피파니의 전조로 보기 어렵다.

네 번째 외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포/무서움’의 감정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데, “나를 조금식조금식 죽이려든것일까?”(「날개」, ID:559)와 “그랬드니 안해는 너머진내우에 덩치면서내살을 함부로 물어뜯는것이다.”(「날개」, ID:572),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 보고도 싶었으나 그런 긴가민가한 소리를 선불리 입 밖에 내었다가는 무슨 화를 볼는지 알 수 있다.”(「날개」, ID:580),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졌다.”(「날개」, ID:611),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날개」, ID:628)의 다섯 문장이 0.7 이상의 ‘공포/무서움’ 감정 수치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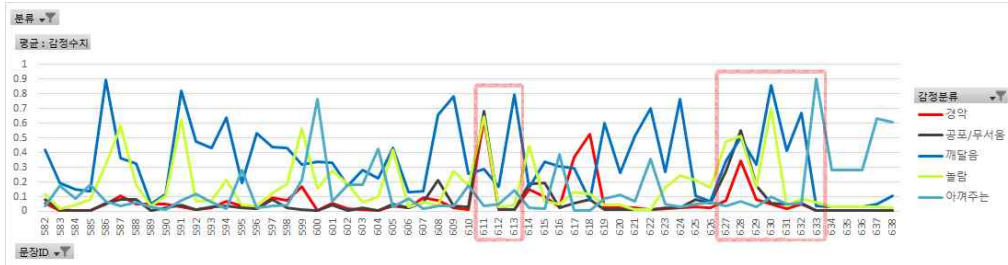
[그림 19] 「날개」 네 번째 외출 이후의 감정 흐름 선 그래프



네 번째 외출(「날개」, ID:530) 이후 처음 ‘공포/무서움’이 돌출되는 문장(「날개」, ID:559)은 작중 화자가 자신이 아스피린이 아닌 아달린을 먹어 왔음을 깨닫고 네 번째 외출(「날개」, ID:530)을 감행하여 아내의 의도를 고찰(「날개」, ID:558)하는 대목이다. 아내가 아달린을 먹인 목적을 추론하던 ‘나’는 “나를 밤이나낮이나재워놓고 그리고 안해는 내가자는데동안에 무슨짓을했나? 나를 조금식조금식 죽이려든것일까?”(「날개」, ID:558-559)에서 ‘경악’과 ‘놀람’, ‘공포/무서움’의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심은 아내에 대한 의심을 애써 흐리터분하게 하는 “그렇나 또 생각해야 보면 내가 한달을두고 먹어온것은 아스피린이었는지도모른다.”(「날개」, ID:560)라는 거짓 깨달음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소된다. 이때 깨달음은 에피파니의 순간을 포착한 것은 아닌데, 깨달음이 두려운 진실에 대한 통찰이 아닌 모면을 획책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돌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에게 오해했는지 모른다는 가능성으로 스스로를 설유하며,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끼기까지 한다.

그러나 네 번째 외출에서 귀가(「날개」, ID:564)하고서 ‘나’가 목격한 광경은 말 그대로 “눈으로는 절대로 보아서않될것”(「날개」, ID:569)이었다. 여기서 ‘나’는 두 번에 걸친 ‘공포/무서움’을 느낀다. “그랬드니 안해는 너머진내우에 덤치면서내살을 함부로 물어뜯는것이다.”(「날개」, ID:572)와 “너는 그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든것이아 니냐고 소리를 한번 꺾 질러보고도싶었으나 그런 강가망가한소리를섯불니 입밖에내 였다가는 무슨화를볼른지 알수있나”(「날개」, ID:580)가 바로 그 지점이다. 그러나 이 대목의 ‘공포/무서움’ 역시 ‘깨달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에피파니의 순간이라 하기는 어렵다. 단지 아내의 부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로 종전에 이루 었던 거짓 깨달음이 와해되는 순간일 뿐이다. 외면하고자 했던 진상과 대면한 ‘나’는 “줄달음박질을 쳐서 나와”(「날개」, ID:581) 경성역으로 향한다.

[그림 20] 「날개」 다섯 번째 외출 이후의 감정 흐름 선 그래프



다섯 번째 외출(「날개」, ID:582)을 감행한 ‘나’는 쓰디쓴 입맛을 달래기 위해 커피를 마시려 하나 자신이 무일푼 신세임(「날개」, ID:586)을, 몇 시간 후 자신이 미쓰꼬시 옥상에 있는 것(「날개」, ID:591)을 깨닫는다. 이곳에서 ‘나’는 “또 나 자신에게 물어보”(「날개」, ID:594)면서 스스로의 삶을 회고하기 시작한다.

이 시점부터 깨달음을 포함해 여타 감정 전반은 하향선을 그리다가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하였다.”(「날개」, ID:608)라는 대목에서 새롭게 깨달음의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이윽고 ‘나’는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 떨어”(「날개」, ID:611)지는 것을 보며 공포를 느낀다. 이는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있”(「날개」, ID:613)으며 “우리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맞지않는 절늬바리인것”(「날개」, ID:619)이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거러가면 되는것”(「날개」, ID:622)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돌연 사이렌이 울리며 “사람들은 모도 네활개를퍼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지폐와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떨고 하는 것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도”(「날개」, ID:628)가 찾아온다. 이 환상적인 광경은 실은 인파가 거리를 왕래하는 경성의 일상적인 풍경에 지나지 않지만 ‘찰나’의 현시로서 모종의 통찰에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 통찰이란 바로 “아하그것은 내 인공의날개가돋았든자족이다.”(「날개」, ID:630)라는 깨달음이다.

「날개」의 에피파니가 「집쟁이餓死」와 변별되는 지점은 에피파니의 순간 직후에 있다. 「집쟁이餓死」가 공포와 깨달음의 연쇄로 감정 서사가 마무리되는 반면, 「날개」의 경우 마지막 “날개야 다시 돌아라.”(「날개」, ID:633)라는 외침에서 ‘아껴주는’ 과 같은 긍정적 감정의 부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은 앞서 살펴본 타 작품의 에피파니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극적 에피파니보다는 서정적 에피파니

에 가까워 보인다. 극적 에피파니는 “객관적이며 단편적인 스케치”를 통해 주체로 하여금 모종의 성찰에 이르게 하는 한편 서정적 에피파니는 “극적 에피파니를 서정적인 글귀와 꿈의 해석으로 결합시킴으로써”(선주원, 2009) 광휘의 순간을 가시화하는데, 「날개」에서는 에피파니의 순간이 인식 주체가 실존적 도약을 희구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피파니의 순간은 문학 경험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재구하게 된다. 현대 독자에게 이상이라는 과거의 작가가 단순히 타자로 남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작중 인물이 에피파니를 통해 서사 전반을 꿰뚫는 일말의 진실에 닿을 때 독자는 타인의 서사를 자신의 것으로 성찰하게 된다.

V. 마치며

이상 단편소설의 작중 화자와 독자의 관계는 상호 주체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감정을 매개로 형성된 관계이다. 이상 단편소설의 작중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현대의 독자들은 감정적 맥락을 통해 화자에 몰입하고 자기 동일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KOTE 감정 분류의 ‘깨달음’의 감정으로 포착 가능한 에피파니의 경험을 통해 촉발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골자이다. 또한 KOTE 데이터셋과 딥러닝 감정 분석 기술을 활용해 문학 텍스트에 나타난 에피파니의 순간을 미진하게나마 일관적으로, 동시에 계량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작가들이 표현의 효용을 위해 에피파니를 의도하므로, 이러한 순간을 기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은 대량의 문학 텍스트를 살필 때 장차 유용한 일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갖는 한계 역시 명확하다. 먼저 KcELECTRA로 감정 분석을 수행한 이상 단편소설 텍스트는 원문이 아닌 표기와 어휘를 현대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다소 수정한 민음사 판본이므로, 정확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KOTE는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셋이 아니라 현대 한국어로 작성된 온라인 댓글에 대한 감정 레이블이 부착된 데이터셋이므로, 이를 활용한 문학 텍스트 감정 분석은 정확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에피파니’의 포착에 있어 더 많은 양의 문학 텍스트를 바탕으로 논구하지 못하였다는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구축할 수 있는 문학 텍스트의 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더 많은 연구자들의 적극적 참여로 보다 많은 양의 한국 근대문학 텍스트가 공공 데이터 형식으로 구축된다면 상당 부분 극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감정 식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역시 추후 남겨진 과제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감정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정확도 면에서 훨씬 비약적인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에피파니’의 감정 패턴을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적용할 경우 인공지능 문학 창작의 심미적 특수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기본 자료

- 이상 저, 김주현 편, 『이상문학전집』, 소명출판, 2009.
이상 저, 권영민 편, 『이상 소설 전집』, 민음사, 2012.

단행본

- 차장섭, 『감정과 사회』, 일조각, 1997.
테오도어 W. 아도르노, 『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001.
방민호, 『이상 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예옥, 2015.
김왕배, 『감정과 사회: 감정의 렌즈를 통해 본 한국 사회』, 한울아카데미, 2019.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2007).
United Kingdom: Pearson Education Limited.

학위논문

- 노태훈. "이상 문학에 나타난 서사성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서울
이소람. "Analysis of Tokenizers for Various Korean NLP Tasks."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이만식. "이상 시의 어휘 사용 양상과 공기관계 네트워크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2013. 서울

연구논문

- 김주현. "1990년대 이상 연구의 현황 및 전망." 이상리뷰 -.1 (2001): 185-203.
_____. "이상 논저 목록(1990년대 이후)." 이상리뷰 -.3 (2004): 212-244.
조해옥. "이상 연구 1세대-임종국, 이어령, 고석규의 이상론 연구." 한국현대문학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0.10 (2010): 1-9.
서종택. "한국 현대소설의 미학적 기반(1)-박태원 이상의 단편소설."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 (2003): 181-206.

- 홍수현. "李箱의 유일한 동화 '황소와 도깨비' 창작 아닌 변안작품일 수도." 이상리뷰 -3 (2004): 205-206.
- 박필현. (2017). 두 갈래의 세계 체험과 '흔적'으로서의 '나' - 이상의 「지도(地圖)의 암실(暗室)」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1, 126-138.
- 孫京鎬. (2007). 일본어 촉각형용사에 관한 일고찰. [A Study on Adjective of the Touch in Japanese - In Contrast with Korean] 日本研究, 32(-), 217-237.
- 김찬화. (2014). 한·중 표면 촉각 형용사 의미 대조연구. [韩·中表面触觉形容词词义对照研究]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1), 29-5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0071987>
- 전은진. (2011). 후각 형용사의 의미론적 연구. [A Semantic Study on Olfactory Adjectives] 국제어문, 51(-), 9-47.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3032634>
- 홍석준. (2022). 한국어 감각형용사의 어근 파생 접미사와 어근 형성. [Root Derivational Suffixes and Root Formation of Korean Sensory Adjectives] 한국학연구, -(66), 129-170.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8259856>
- 정명중. (2018). 감성연구 성과와 전망- 호남학연구원 인문한국(HK)사업단을 중심으로. 감성연구, 16, 43-60.
- 고현혜. (2015). 이상문학에서 되살아나는 '해태'- 「집팽이鞭死(역사)」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2(3), 183-221.
- Burrows, T. Reproducibility, verifiability, and computational historical research. Int J Digit Humanities (2023). <https://doi.org/10.1007/s42803-023-00068-9>
- Goodman SN, Fanelli D, Ioannidis JP. What does research reproducibility mean? Sci Transl Med. 2016 Jun 1;8(341):341ps12. doi: 10.1126/scitranslmed.aaf5027. PMID: 27252173.
- 류인태. (2023). 인문학이 데이터와 만날 때 : 재현-연결-표준으로서 인문학 데이터의 내포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65, 7-41.
- 정서현. (2023). 문학 연구의 고유성과 디지털인문학의 가능성: 연구 동향 분석 및 견여한 제안. 근대영미소설, 30(2), 129-157.
- 윤미선. (2023). 인문 "스몰 데이터" 연구 방법론과 사례 연구: 19세기말 영국 정기간행물 비평 담론 - 주간지 『런던』을 중심으로. 영미문학연구, 44, 83-135.
- Hitchcock, T. (2014). Big data, small data and meaning. Historyonics blogposts-9 November.

- 전성규, 허예슬 and 최주찬. (2021). 이인직 소설의 감정론. 민족문학사연구, 76, 135-189.
- 김바로. "<공공데이터법>과 인문데이터 - 공공기관 보유 인문데이터 공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57 (2022): 167-192.
- _____. (2019).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인문데이터의 역사와 과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3(0), 77-97. 10.46397/JAIH.3.4
- 이윤진 and 전수영. (2021). 단어 임베딩을 통한 고전 문학 감정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985-996.
- 강우규. (2022). 국문장편소설의 디지털 큐레이션 방안 고찰-디지털 감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5, 29-64.
- 박찬길. (2007). 인문 전산학과 문학연구: 소략한 개관. 영미문학연구, 12, 55-98.
- McCarty, W. (1998). What is humanities computing? Toward a definition of the field. Centre for Computing in.
- 김현. (2013). 디지털 인문학 -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 인문콘텐츠, 29, 9-26.
- Stephen Ramsay, Special Section: Reconceiving Text Analysis: Toward an Algorithmic Criticism, Literary and Linguistic Computing, Volume 18, Issue 2, June 2003, Pages 167-174, <https://doi.org/10.1093/lc/18.2.167>
- Jeon, D., Lee, J., & Kim, C. (2022). User Guide for KOTE: Korean Online Comments Emotions Dataset. arXiv preprint arXiv:2205.05300.
- 송현제(Hyun-Je Song). "서브워드 토큰화와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정보과학회지 39.4 (2021): 15-20.
- Batagelj, V., & Mrvar, A. (1998). Pajek-program for large network analysis. Connections, 21(2), 47-57.
- 김민수. "디지털 가상공간으로 본 이상(李箱) 시."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대회 2001.- (2001): 1-25.
- _____. "가상공간에 펼친 날개: 1930년대 이상의 실험시와 디지털 가상공간의 상관성 연구." 영상문화 9.- (2004): 1-31.
- 박윤기. (2006). 조이스의 에피파니 이론:『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어문학, 24(3), 67-86.
- 이현승. (2015). 서정주 시의 화자 연구 - [화사집] 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2, 59-80.
- 문영진. (2010). 채만식 소설 <생명>에 대하여. 비평문학, 36, 81-101.
- 선주원. (2009). 에피파니 인식과 서사적 정체성 구성을 위한 서사 교육. 국어교육,

- 129, 263-290.
- 신혜정, and 문성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번역가 문체 분석 - 'as if' 구문 번역을 중심으로 -." T&I review 12.1 (2022): 97-120.
- 장만호, 김일환, and 김지율. "일제강점기 신문 독자투고시의 계량적 연구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게재 작품을 대상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0.49 (2018): 67-86.
- 강우규, and 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의 문체론적 고찰 - 컴퓨터를 활용한 계층분석을 바탕으로." 인문과학연구 0.59 (2018): 29-46.
- _____. (2018).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현성록> 연작의 감정 연구. 문화와융합, 40(4), 149-174.
- _____. (2019). 고전소설에 대한 디지털 감정 분석방법론 탐색 - <구운몽>을 대상으로 -. 동아시아고대학, 56, 349-377.
- _____. (2022). 한국 대중 서사 기반 감정 데이터 구축과 활용 - 감정 딥러닝 모델 구현을 통한 문학 연구의 활용 가능성 탐색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인문학연구, 12, 41-72.
- 김성문(Kim Seongmoon), and 김바로(Kim Baro). "딥러닝을 활용한 시조의 유형 고찰 : 영남가단과 호남가단의 시조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8 (2021): 185-204.
- 반재유. "1920년대 신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문학담론 고찰 -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문학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98.- (2022): 101-128.
- 장재원, and 정혜윤. "셰르누다의 『현실과 욕망』에 관한 디지털 인문학적 분석 시도: 전기 시와 후기 시의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5.2 (2022): 65-92.
- 전성규. "한국 근대 잡지의 계량적 연구 방법에 대한 논의: 코퍼스 구축 및 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82.- (2023): 159-210.
- 김정숙, and 김미영. "문학 작품과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00.- (2023): 197-222.
- 윤서영. "문학 텍스트 다시 읽기, 가까이서 읽기, 멀리서 읽기: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한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 1719)와 『포』(Foe, 1986) 분석." 한국아프리카학회지 68.- (2023): 101-132.
- 전보미. (2022). 코퍼스 분석을 기반으로 한 <출항>의 문체 연구: 초기 모더니즘 소설의 장르적 변형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24(1), 89-115.
- 김준환, 이진주 and 조찬영. (2022). 근대 한국 잡지 속 미국 흑인 시인, 1910-1945 -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 현대영미시연구, 28(2), 91-136.
- 전은진. (2017). 김수영과 신동문 시의 계량언어학적 분석. 한국언어문화, 62, 295-327.
- 이신영, 함준석 and 고일주. (2011). 정서 차원 공간에서 소설의 지배 정서 분석 및 분

- 류. 인지과학, 22(3), 299-326.
- 함준석, 이신영 and 고일주. (2011). 텍스트의 정서 단어 추출을 통한 문학 작품의 정서 분석. 감성과학, 14(2), 257-268.
- 박소영. (2021). 『햄릿』의 혐오감정 해석의 역사와 인공지능 감정 네트워크 분석. 인공지능인문학연구, 7, 195-224.
- 임태연, 김새봄 and 권소현. (2021). 모레티의 “원거리 읽기”를 통한 18, 19세기 영문학 텍스트 지리적 어휘 빈도수 및 감정 분석: 서유럽 근대 민족-국가의 발전과정과 지리적 감정의 정치학. 인문과학연구논총, 42(2), 151-192.

【부록】

[부록 1] 개별 감정 평균 간 피어슨 상관계수 표

	불평/불만	환영/호의	감동/감탄	지긋지긋	고마움	슬픔	화남/분노	존경	기대감	우쭐댐/무시함	안타까움/실망
불평/불만		-0.42	-0.45	0.75	-0.33	0.06*	0.78	-0.26	-0.42	0.19	0.56
환영/호의	-0.42		0.72	-0.4	0.6	-0.41	-0.38	0.57	0.72	-0.06*	-0.56
감동/감탄	-0.45	0.72		-0.45	0.54	-0.31	-0.39	0.67	0.53	-0.13	-0.51
지긋지긋	0.75	-0.4	-0.45		-0.29	0.22	0.59	-0.25	-0.34	0.28	0.48
고마움	-0.33	0.6	0.54	-0.29		-0.17	-0.28	0.47	0.29	-0.16	-0.38
슬픔	0.06*	-0.41	-0.31	0.22	-0.17		0.05*	-0.18	-0.39	-0.36	0.64
화남/분노	0.78	-0.38	-0.39	0.59	-0.28	0.05*		-0.19	-0.38	0.19	0.35
존경	-0.26	0.57	0.67	-0.25	0.47	-0.18	-0.19		0.33	-0.0**	-0.27
기대감	-0.42	0.72	0.53	-0.34	0.29	-0.39	-0.38	0.33		0.03**	-0.56
우쭐댐/무시함	0.19	-0.06*	-0.13	0.28	-0.16	-0.36	0.19	-0.0**	0.03**		0.05**
안타까움/실망	0.56	-0.56	-0.51	0.48	-0.38	0.64	0.35	-0.27	-0.56	0.05**	
비장함	-0.03**	-0.14	-0.2	0.1	-0.09	0.04**	0.23	0.07*	0.16	0.31	0.03**
의심/불신	0.52	-0.41	-0.41	0.35	-0.35	-0.08	0.56	-0.21	-0.29	0.32	0.4
뿌듯함	-0.43	0.7	0.7	-0.35	0.68	-0.42	-0.38	0.33	0.54	0.06*	-0.6

편안/쾌적	-0.41	0.56	0.46	-0.33	0.71	-0.29	-0.41	0.1	0.39	-0.16	-0.52
신기함/관심	-0.45	0.65	0.71	-0.46	0.15	-0.48	-0.41	0.39	0.62	0.04**	-0.56
아껴주는	-0.43	0.69	0.39	-0.35	0.55	-0.05*	-0.35	0.39	0.34	-0.11	-0.26
부끄러움	0.35	-0.42	-0.32	0.45	-0.29	0.37	0.3	-0.25	-0.43	0.21	0.53
공포/무서움	0.1	-0.3	-0.21	0.03**	-0.24	0.12	0.35	-0.15	-0.17	-0.14	0.04**
절망	0.31	-0.49	-0.43	0.47	-0.29	0.85	0.3	-0.25	-0.41	-0.19	0.65
한심함	0.66	-0.39	-0.39	0.65	-0.32	0.04**	0.57	-0.18	-0.42	0.62	0.6
역겨움/징그러움	0.49	-0.26	-0.23	0.34	-0.21	-0.07*	0.71	-0.14	-0.29	0.18	0.17
짜증	0.92	-0.43	-0.46	0.77	-0.32	0.06*	0.85	-0.28	-0.45	0.17	0.41
어이없음	0.68	-0.4	-0.37	0.46	-0.34	-0.11	0.62	-0.21	-0.45	0.41	0.41
없음	-0.37	-0.04**	-0.12	-0.32	-0.16	-0.31	-0.32	-0.04**	0.08	0.21	-0.29
패배/자기혐오	0.23	-0.4	-0.35	0.56	-0.21	0.67	0.17	-0.22	-0.33	0.03**	0.53
귀찮음	0.42	-0.32	-0.44	0.67	-0.22	0.06*	0.17	-0.3	-0.3	0.17	0.2
힘듦/지침	0.22	-0.42	-0.46	0.56	-0.17	0.74	0.09	-0.31	-0.29	-0.22	0.46
즐거움/신남	-0.34	0.59	0.57	-0.29	0.31	-0.41	-0.3	0.08	0.56	0.04**	-0.55
깨달음	-0.42	0.06*	0.33	-0.26	0.16	-0.06*	-0.34	0.27	0.18	0.18	-0.1
죄책감	0.14	-0.42	-0.35	0.38	-0.19	0.79	0.22	-0.19	-0.38	-0.1	0.57
증오/혐오	0.59	-0.3	-0.29	0.45	-0.24	-0.04**	0.84	-0.14	-0.32	0.27	0.24

흐뭇함(귀여움/예쁨)	-0.3	0.62	0.53	-0.32	0.29	-0.27	-0.27	0.2	0.26	-0.08	-0.39
당황/난처	0.44	-0.48	-0.44	0.23	-0.35	0.14	0.36	-0.34	-0.51	-0.11	0.35
경악	0.43	-0.33	-0.25	0.19	-0.27	-0.04**	0.72	-0.14	-0.33	0.07*	0.16
부담/안-내킴	0.63	-0.5	-0.56	0.68	-0.4	0.14	0.38	-0.37	-0.42	0.14	0.49
서러움	0.18	-0.39	-0.36	0.43	-0.17	0.87	0.1	-0.22	-0.36	-0.2	0.59
재미없음	0.49	-0.26	-0.26	0.49	-0.23	0.05*	0.07*	-0.19	-0.22	0.21	0.41
불쌍함/연민	0.02**	-0.33	-0.32	0.18	-0.17	0.74	0.09	-0.09	-0.38	-0.02**	0.69
놀람	-0.19	0.14	0.42	-0.32	-0.04**	-0.26	-0.05*	0.24	0.13	-0.08	-0.28
행복	-0.42	0.63	0.67	-0.35	0.61	-0.28	-0.38	0.2	0.49	-0.15	-0.54
불안/걱정	0.18	-0.49	-0.55	0.24	-0.35	0.48	0.27	-0.34	-0.33	-0.2	0.43
기쁨	-0.4	0.67	0.68	-0.35	0.62	-0.35	-0.36	0.2	0.52	-0.11	-0.57
안심/신뢰	-0.43	0.68	0.51	-0.34	0.78	-0.34	-0.36	0.48	0.5	-0.03**	-0.51
	비장함	의심/불신	뿌듯함	편안/쾌적	신기함/관심	아껴주는	부끄러움	공포/무서움	절망	한심함	역겨움/징그러움
불평/불만	-0.03**	0.52	-0.43	-0.41	-0.45	-0.43	0.35	0.1	0.31	0.66	0.49
환영/호의	-0.14	-0.41	0.7	0.56	0.65	0.69	-0.42	-0.3	-0.49	-0.39	-0.26
감동/감탄	-0.2	-0.41	0.7	0.46	0.71	0.39	-0.32	-0.21	-0.43	-0.39	-0.23
지긋지긋	0.1	0.35	-0.35	-0.33	-0.46	-0.35	0.45	0.03**	0.47	0.65	0.34
고마움	-0.09	-0.35	0.68	0.71	0.15	0.55	-0.29	-0.24	-0.29	-0.32	-0.21

슬픔	0.04**	-0.08	-0.42	-0.29	-0.48	-0.05*	0.37	0.12	0.85	0.04**	-0.07*
화남/분노	0.23	0.56	-0.38	-0.41	-0.41	-0.35	0.3	0.35	0.3	0.57	0.71
존경	0.07*	-0.21	0.33	0.1	0.39	0.39	-0.25	-0.15	-0.25	-0.18	-0.14
기대감	0.16	-0.29	0.54	0.39	0.62	0.34	-0.43	-0.17	-0.41	-0.42	-0.29
우쭐댐/무시함	0.31	0.32	0.06*	-0.16	0.04**	-0.11	0.21	-0.14	-0.19	0.62	0.18
안타까움/실망	0.03**	0.4	-0.6	-0.52	-0.56	-0.26	0.53	0.04**	0.65	0.6	0.17
비장함		0.23	-0.14	-0.22	-0.28	-0.06*	-0.09	0.19	0.2	0.06*	0.05*
의심/불신	0.23		-0.43	-0.46	-0.26	-0.41	0.22	0.41	0.19	0.57	0.46
뿌듯함	-0.14	-0.43		0.81	0.5	0.44	-0.28	-0.3	-0.45	-0.36	-0.26
편안/쾌적	-0.22	-0.46	0.81		0.25	0.47	-0.33	-0.31	-0.38	-0.42	-0.28
신기함/관심	-0.28	-0.26	0.5	0.25		0.29	-0.2	-0.15	-0.54	-0.32	-0.18
아껴주는	-0.06*	-0.41	0.44	0.47	0.29		-0.3	-0.25	-0.3	-0.31	-0.26
부끄러움	-0.09	0.22	-0.28	-0.33	-0.2	-0.3		0.13	0.52	0.61	0.32
공포/무서움	0.19	0.41	-0.3	-0.31	-0.15	-0.25	0.13		0.26	0.0**	0.41
절망	0.2	0.19	-0.45	-0.38	-0.54	-0.3	0.52	0.26		0.24	0.09
한심함	0.06*	0.57	-0.36	-0.42	-0.32	-0.31	0.61	0.0**	0.24		0.45
역겨움/징그러움	0.05*	0.46	-0.26	-0.28	-0.18	-0.26	0.32	0.41	0.09	0.45	
짜증	-0.02**	0.44	-0.41	-0.41	-0.45	-0.41	0.38	0.17	0.3	0.61	0.53

어이없음	-0.13	0.59	-0.36	-0.45	-0.2	-0.4	0.55	0.14	0.09	0.78	0.43
없음	0.25	-0.07	-0.04**	0.0**	0.12	-0.04**	-0.23	-0.17	-0.28	-0.22	-0.2
패배/자기혐오	0.16	0.07	-0.27	-0.24	-0.41	-0.24	0.7	0.06*	0.83	0.36	0.05**
귀찮음	-0.07*	0.05**	-0.22	-0.13	-0.37	-0.26	0.27	-0.1	0.2	0.29	-0.03**
힘듦/지침	0.13	-0.05*	-0.33	-0.15	-0.55	-0.14	0.34	0.06*	0.77	0.09	-0.12
즐거움/신남	-0.24	-0.37	0.78	0.56	0.6	0.27	-0.16	-0.21	-0.41	-0.3	-0.18
깨달음	0.3	-0.05**	0.24	0.15	0.24	0.05*	-0.01**	-0.09	-0.08	-0.13	-0.21
죄책감	0.23	0.12	-0.33	-0.29	-0.45	-0.16	0.6	0.25	0.88	0.25	0.08
증오/혐오	0.18	0.54	-0.3	-0.33	-0.26	-0.29	0.33	0.36	0.16	0.56	0.94
흐뭇함(귀여움/예쁨)	-0.34	-0.34	0.54	0.44	0.62	0.57	-0.07*	-0.2	-0.35	-0.25	-0.13
당황/난처	-0.29	0.35	-0.43	-0.42	-0.24	-0.38	0.48	0.37	0.23	0.27	0.21
경악	0.07*	0.57	-0.33	-0.38	-0.16	-0.33	0.32	0.69	0.14	0.36	0.81
부담/안-내킴	-0.01**	0.48	-0.48	-0.41	-0.41	-0.43	0.47	0.27	0.37	0.49	0.31
서러움	0.04**	-0.05*	-0.33	-0.24	-0.47	-0.12	0.52	0.03**	0.88	0.17	-0.07
재미없음	-0.11	0.11	-0.21	-0.18	-0.23	-0.31	0.34	-0.12	0.19	0.42	0.05*
불쌍함/연민	0.14	0.07*	-0.41	-0.34	-0.39	0.18	0.38	0.06*	0.55	0.33	0.04**
놀람	-0.27	0.08	0.12	-0.15	0.6	-0.08	0.07*	0.36	-0.26	-0.13	0.06*
행복	-0.24	-0.46	0.86	0.81	0.43	0.47	-0.28	-0.27	-0.37	-0.4	-0.25

불안/걱정	0.22	0.46	-0.55	-0.46	-0.45	-0.18	0.17	0.61	0.54	0.1	0.12
기쁨	-0.25	-0.44	0.89	0.79	0.47	0.43	-0.28	-0.26	-0.41	-0.39	-0.24
안심/신뢰	0.07*	-0.35	0.68	0.69	0.27	0.56	-0.41	-0.24	-0.42	-0.39	-0.29
	짜증	어이없음	없음	패배/자기혐오	귀찮음	힘듦/지침	즐거움/신남	깨달음	죄책감	증오/혐오	흐뭇함(귀여움/예쁨)
불평/불만	0.92	0.68	-0.37	0.23	0.42	0.22	-0.34	-0.42	0.14	0.59	-0.3
환영/호의	-0.43	-0.4	-0.04**	-0.4	-0.32	-0.42	0.59	0.06*	-0.42	-0.3	0.62
감동/감탄	-0.46	-0.37	-0.12	-0.35	-0.44	-0.46	0.57	0.33	-0.35	-0.29	0.53
지긋지긋	0.77	0.46	-0.32	0.56	0.67	0.56	-0.29	-0.26	0.38	0.45	-0.32
고마움	-0.32	-0.34	-0.16	-0.21	-0.22	-0.17	0.31	0.16	-0.19	-0.24	0.29
슬픔	0.06*	-0.11	-0.31	0.67	0.06*	0.74	-0.41	-0.06*	0.79	-0.04**	-0.27
화남/분노	0.85	0.62	-0.32	0.17	0.17	0.09	-0.3	-0.34	0.22	0.84	-0.27
존경	-0.28	-0.21	-0.04**	-0.22	-0.3	-0.31	0.08	0.27	-0.19	-0.14	0.2
기대감	-0.45	-0.45	0.08	-0.33	-0.3	-0.29	0.56	0.18	-0.38	-0.32	0.26
우쭐댐/무시함	0.17	0.41	0.21	0.03**	0.17	-0.22	0.04**	0.18	-0.1	0.27	-0.08
안타까움/실망	0.41	0.41	-0.29	0.53	0.2	0.46	-0.55	-0.1	0.57	0.24	-0.39
비장함	-0.02**	-0.13	0.25	0.16	-0.07*	0.13	-0.24	0.3	0.23	0.18	-0.34
의심/불신	0.44	0.59	-0.07	0.07	0.05**	-0.05*	-0.37	-0.05**	0.12	0.54	-0.34

뿌듯함	-0.41	-0.36	-0.04**	-0.27	-0.22	-0.33	0.78	0.24	-0.33	-0.3	0.54
편안/쾌적	-0.41	-0.45	0.0**	-0.24	-0.13	-0.15	0.56	0.15	-0.29	-0.33	0.44
신기함/관심	-0.45	-0.2	0.12	-0.41	-0.37	-0.55	0.6	0.24	-0.45	-0.26	0.62
아껴주는	-0.41	-0.4	-0.04**	-0.24	-0.26	-0.14	0.27	0.05*	-0.16	-0.29	0.57
부끄러움	0.38	0.55	-0.23	0.7	0.27	0.34	-0.16	-0.01**	0.6	0.33	-0.07*
공포/무서움	0.17	0.14	-0.17	0.06*	-0.1	0.06*	-0.21	-0.09	0.25	0.36	-0.2
절망	0.3	0.09	-0.28	0.83	0.2	0.77	-0.41	-0.08	0.88	0.16	-0.35
한심함	0.61	0.78	-0.22	0.36	0.29	0.09	-0.3	-0.13	0.25	0.56	-0.25
역겨움/징그러움	0.53	0.43	-0.2	0.05**	-0.03**	-0.12	-0.18	-0.21	0.08	0.94	-0.13
짜증		0.73	-0.37	0.25	0.49	0.26	-0.31	-0.47	0.19	0.63	-0.28
어이없음	0.73		-0.21	0.13	0.3	-0.06*	-0.22	-0.27	0.09	0.49	-0.17
없음	-0.37	-0.21		-0.23	-0.04**	-0.27	-0.13	0.3	-0.29	-0.22	-0.07*
패배/자기혐오	0.25	0.13	-0.23		0.36	0.77	-0.27	0.08	0.88	0.11	-0.25
귀찮음	0.49	0.3	-0.04**	0.36		0.53	-0.18	-0.26	0.18	0.01**	-0.22
힘듦/지침	0.26	-0.06*	-0.27	0.77	0.53		-0.33	-0.09	0.73	-0.07*	-0.33
즐거움/신남	-0.31	-0.22	-0.13	-0.27	-0.18	-0.33		-0.02**	-0.34	-0.23	0.62
깨달음	-0.47	-0.27	0.3	0.08	-0.26	-0.09	-0.02**		0.1	-0.23	-0.07
죄책감	0.19	0.09	-0.29	0.88	0.18	0.73	-0.34	0.1		0.14	-0.26

증오/혐오	0.63	0.49	-0.22	0.11	0.01**	-0.07*	-0.23	-0.23	0.14		-0.18
흐뭇함(귀여움/예쁨)	-0.28	-0.17	-0.07*	-0.25	-0.22	-0.33	0.62	-0.07	-0.26	-0.18	
당황/난처	0.55	0.68	-0.2	0.16	0.34	0.17	-0.28	-0.32	0.22	0.18	-0.17
경악	0.52	0.57	-0.23	0.01**	-0.07	-0.14	-0.22	-0.22	0.14	0.77	-0.17
부담/안-내킴	0.62	0.5	-0.16	0.41	0.69	0.45	-0.38	-0.19	0.32	0.32	-0.35
서러움	0.21	0.02**	-0.31	0.88	0.3	0.86	-0.32	-0.08	0.87	-0.03**	-0.25
재미없음	0.33	0.28	-0.09	0.3	0.5	0.26	-0.15	-0.14	0.1	0.06*	-0.2
불쌍함/연민	0.01**	0.07*	-0.22	0.49	-0.03**	0.45	-0.42	0.03**	0.63	0.08	-0.21
놀람	-0.11	0.24	-0.13	-0.27	-0.27	-0.41	0.23	0.1	-0.17	-0.03**	0.26
행복	-0.4	-0.41	-0.17	-0.24	-0.25	-0.24	0.84	0.07	-0.29	-0.3	0.61
불안/걱정	0.23	0.14	-0.16	0.31	0.15	0.5	-0.49	-0.15	0.5	0.14	-0.39
기쁨	-0.38	-0.36	-0.19	-0.28	-0.24	-0.29	0.89	0.05*	-0.33	-0.29	0.61
안심/신뢰	-0.42	-0.42	0.03**	-0.3	-0.21	-0.22	0.26	0.36	-0.28	-0.31	0.2
	당황/난처	경악	부담/안-내킴	서러움	재미없음	불쌍함/연민	놀람	행복	불안/걱정	기쁨	안심/신뢰
불평/불만	0.44	0.43	0.63	0.18	0.49	0.02**	-0.19	-0.42	0.18	-0.4	-0.43
환영/호의	-0.48	-0.33	-0.5	-0.39	-0.26	-0.33	0.14	0.63	-0.49	0.67	0.68
감동/감탄	-0.44	-0.25	-0.56	-0.36	-0.26	-0.32	0.42	0.67	-0.55	0.68	0.51
지긋지긋	0.23	0.19	0.68	0.43	0.49	0.18	-0.32	-0.35	0.24	-0.35	-0.34

고마움	-0.35	-0.27	-0.4	-0.17	-0.23	-0.17	-0.04**	0.61	-0.35	0.62	0.78
슬픔	0.14	-0.04**	0.14	0.87	0.05*	0.74	-0.26	-0.28	0.48	-0.35	-0.34
화남/분노	0.36	0.72	0.38	0.1	0.07*	0.09	-0.05*	-0.38	0.27	-0.36	-0.36
존경	-0.34	-0.14	-0.37	-0.22	-0.19	-0.09	0.24	0.2	-0.34	0.2	0.48
기대감	-0.51	-0.33	-0.42	-0.36	-0.22	-0.38	0.13	0.49	-0.33	0.52	0.5
우쭐댐/무시함	-0.11	0.07*	0.14	-0.2	0.21	-0.02**	-0.08	-0.15	-0.2	-0.11	-0.03**
안타까움/실망	0.35	0.16	0.49	0.59	0.41	0.69	-0.28	-0.54	0.43	-0.57	-0.51
비장함	-0.29	0.07*	-0.01**	0.04**	-0.11	0.14	-0.27	-0.24	0.22	-0.25	0.07*
의심/불신	0.35	0.57	0.48	-0.05*	0.11	0.07*	0.08	-0.46	0.46	-0.44	-0.35
뿌듯함	-0.43	-0.33	-0.48	-0.33	-0.21	-0.41	0.12	0.86	-0.55	0.89	0.68
편안/쾌적	-0.42	-0.38	-0.41	-0.24	-0.18	-0.34	-0.15	0.81	-0.46	0.79	0.69
신기함/관심	-0.24	-0.16	-0.41	-0.47	-0.23	-0.39	0.6	0.43	-0.45	0.47	0.27
아껴주는	-0.38	-0.33	-0.43	-0.12	-0.31	0.18	-0.08	0.47	-0.18	0.43	0.56
부끄러움	0.48	0.32	0.47	0.52	0.34	0.38	0.07*	-0.28	0.17	-0.28	-0.41
공포/무서움	0.37	0.69	0.27	0.03**	-0.12	0.06*	0.36	-0.27	0.61	-0.26	-0.24
절망	0.23	0.14	0.37	0.88	0.19	0.55	-0.26	-0.37	0.54	-0.41	-0.42
한심함	0.27	0.36	0.49	0.17	0.42	0.33	-0.13	-0.4	0.1	-0.39	-0.39
역겨움/징그러움	0.21	0.81	0.31	-0.07	0.05*	0.04**	0.06*	-0.25	0.12	-0.24	-0.29

짜증	0.55	0.52	0.62	0.21	0.33	0.01**	-0.11	-0.4	0.23	-0.38	-0.42
어이없음	0.68	0.57	0.5	0.02**	0.28	0.07*	0.24	-0.41	0.14	-0.36	-0.42
없음	-0.2	-0.23	-0.16	-0.31	-0.09	-0.22	-0.13	-0.17	-0.16	-0.19	0.03**
패배/자기혐오	0.16	0.01**	0.41	0.88	0.3	0.49	-0.27	-0.24	0.31	-0.28	-0.3
귀찮음	0.34	-0.07	0.69	0.3	0.5	-0.03**	-0.27	-0.25	0.15	-0.24	-0.21
힘듦/지침	0.17	-0.14	0.45	0.86	0.26	0.45	-0.41	-0.24	0.5	-0.29	-0.22
즐거움/신남	-0.28	-0.22	-0.38	-0.32	-0.15	-0.42	0.23	0.84	-0.49	0.89	0.26
깨달음	-0.32	-0.22	-0.19	-0.08	-0.14	0.03**	0.1	0.07	-0.15	0.05*	0.36
죄책감	0.22	0.14	0.32	0.87	0.1	0.63	-0.17	-0.29	0.5	-0.33	-0.28
증오/혐오	0.18	0.77	0.32	-0.03**	0.06*	0.08	-0.03**	-0.3	0.14	-0.29	-0.31
흐뭇함(귀여움/예쁨)	-0.17	-0.17	-0.35	-0.25	-0.2	-0.21	0.26	0.61	-0.39	0.61	0.2
당황/난처		0.49	0.58	0.2	0.13	0.05**	0.38	-0.42	0.47	-0.39	-0.43
경악	0.49		0.3	-0.07*	-0.05**	0.03**	0.37	-0.32	0.32	-0.3	-0.34
부담/안-내킴	0.58	0.3		0.3	0.57	0.1	-0.13	-0.48	0.48	-0.47	-0.41
서러움	0.2	-0.07*	0.3		0.19	0.6	-0.3	-0.25	0.41	-0.3	-0.3
재미없음	0.13	-0.05**	0.57	0.19		-0.01**	-0.23	-0.22	-0.07*	-0.22	-0.27
불쌍함/연민	0.05**	0.03**	0.1	0.6	-0.01**		-0.23	-0.34	0.46	-0.4	-0.26
놀람	0.38	0.37	-0.13	-0.3	-0.23	-0.23		0.04**	0.02**	0.11	-0.01**

행복	-0.42	-0.32	-0.48	-0.25	-0.22	-0.34	0.04**		-0.5	0.98	0.46
불안/걱정	0.47	0.32	0.48	0.41	-0.07*	0.46	0.02**	-0.5		-0.51	-0.31
기쁨	-0.39	-0.3	-0.47	-0.3	-0.22	-0.4	0.11	0.98	-0.51		0.5
안심/신뢰	-0.43	-0.34	-0.41	-0.3	-0.27	-0.26	-0.01**	0.46	-0.31	0.5	

p < 0.005, p* < 0.05, p** > 0.05

[부록 2] 개별 감정 평균-개별 감각 평균 간 피어슨 상관계수 표

감각	감동/감탄	경악	고마움	공포/무서움	귀찮음	기대감	기쁨	깨달음	놀람	당황/난처	부끄러움
신체_내부_유기	0.153986	0.094074	0.076446	0.106691	0.155933	0.17454	0.1335	0.384966	0.172893	0.307704	0.082319
신체_내부_평형	0.150567	0.062814	0.063328	0.067988	0.171033	0.198944	0.138812	0.410073	0.206234	0.399211	0.093514
신체_외부_미각	0.239503	0.056851	0.079573	0.054624	0.105303	0.254003	0.275258	0.339213	0.177557	0.265582	0.075784
신체_외부_시각	0.211956	0.110603	0.062314	0.073967	0.084513	0.225327	0.148912	0.398249	0.235107	0.294179	0.090523
신체_외부_청각	0.318745	0.102103	0.083257	0.077888	0.074667	0.28849	0.214786	0.395049	0.306409	0.267061	0.062733
신체_외부_피부_온도각	0.286787	0.048232	0.110678	0.06064	0.077219	0.300057	0.288628	0.362866	0.163868	0.232831	0.05268
신체_외부_피부_촉각	0.243569	0.064376	0.0634	0.052982	0.092337	0.309622	0.201426	0.417466	0.207565	0.241908	0.075741
신체_외부_피부_통각	0.120732	0.07237	0.060449	0.085465	0.090602	0.152297	0.096248	0.365074	0.15442	0.302503	0.06638
신체_외부_후각	0.217312	0.183882	0.043485	0.116995	0.076407	0.181067	0.170657	0.349169	0.242059	0.328466	0.108418
심리_내부_유기	0.126419	0.079271	0.04323	0.080604	0.172125	0.199101	0.059882	0.328662	0.166356	0.3495	0.061652
심리_내부_평형	0.197801	0.196215	0.040298	0.159876	0.086129	0.175161	0.098494	0.421189	0.281832	0.351072	0.105494

심리_외부_미각	0.361657	0.071661	0.082552	0.039904	0.065339	0.351508	0.256896	0.53028	0.240349	0.23313	0.08633
심리_외부_시각	0.26214	0.070094	0.082728	0.065914	0.063767	0.266807	0.150277	0.526588	0.194593	0.190573	0.082941
심리_외부_청각	0.277321	0.084728	0.063996	0.087761	0.083761	0.364757	0.140597	0.55486	0.238986	0.199747	0.095157
심리_외부_피부_온도각	0.370168	0.040146	0.147953	0.041572	0.054647	0.303714	0.296297	0.475035	0.195628	0.159062	0.070261
심리_외부_피부_촉각	0.248856	0.066737	0.08269	0.068184	0.069279	0.290276	0.161565	0.559457	0.163346	0.180381	0.068541
심리_외부_피부_통각	0.16169	0.057544	0.085132	0.072757	0.131331	0.200798	0.130297	0.498107	0.108636	0.197591	0.081006
심리_외부_후각	0.226825	0.194387	0.05738	0.064275	0.082709	0.141176	0.160038	0.403596	0.183274	0.271715	0.138649
감각	부담/안내킴	불쌍함/연민	불안/걱정	불평/불만	비장함	뿌듯함	서러움	슬픔	신기함/관심	아껴주는	안심/신뢰
신체_내부_유기	0.198448	0.241997	0.392179	0.221937	0.169111	0.106341	0.225703	0.362289	0.154832	0.16326	0.18027
신체_내부_평형	0.22544	0.206221	0.390128	0.164162	0.158396	0.123713	0.165657	0.283431	0.173709	0.151604	0.194788
신체_외부_미각	0.149832	0.130697	0.204337	0.239853	0.082449	0.186434	0.127289	0.206978	0.251104	0.136935	0.161093
신체_외부	0.142869	0.239909	0.281514	0.189086	0.170933	0.12471	0.121464	0.222593	0.29529	0.197141	0.159119

_시각											
신체_외부_청각	0.113836	0.16876	0.250488	0.167076	0.16742	0.160941	0.08901	0.172563	0.336682	0.197707	0.205418
신체_외부_피부_온도각	0.120874	0.16972	0.27011	0.167838	0.122398	0.173602	0.134318	0.263425	0.24089	0.212557	0.235357
신체_외부_피부_촉각	0.140385	0.115191	0.225937	0.224755	0.15905	0.159647	0.110884	0.161326	0.347447	0.160125	0.175821
신체_외부_피부_통각	0.162103	0.199405	0.393241	0.206503	0.189379	0.089783	0.194283	0.359023	0.14759	0.117429	0.164769
신체_외부_후각	0.196838	0.169145	0.268176	0.322272	0.094554	0.114849	0.12739	0.213952	0.300643	0.122753	0.110198
심리_내부_유기	0.225176	0.257248	0.428708	0.206691	0.142389	0.051128	0.175333	0.378442	0.148393	0.168162	0.145037
심리_내부_평형	0.216196	0.204656	0.388152	0.247243	0.240234	0.078813	0.135211	0.264544	0.207002	0.095576	0.122169
심리_외부_미각	0.140337	0.203414	0.187669	0.151447	0.166888	0.208968	0.084452	0.152454	0.432328	0.201873	0.210046
심리_외부_시각	0.124256	0.257414	0.297723	0.14559	0.257966	0.136868	0.127755	0.242229	0.284417	0.219575	0.21066
심리_외부_청각	0.153654	0.326798	0.362421	0.168561	0.426588	0.153167	0.233044	0.364187	0.266726	0.22266	0.187481
심리_외부_피부_온도각	0.093837	0.224792	0.20983	0.167405	0.187326	0.212486	0.13799	0.25569	0.282329	0.230513	0.256517
심리_외부_피부_촉각	0.13003	0.256095	0.292886	0.17171	0.312309	0.143869	0.106301	0.2204	0.237081	0.164687	0.214531

심리_외부_피부_통각	0.165096	0.370052	0.369257	0.151953	0.244532	0.117909	0.209146	0.394367	0.132343	0.223868	0.217765
심리_외부_후각	0.13662	0.1918	0.169293	0.327063	0.145138	0.135266	0.1358	0.20496	0.213553	0.08829	0.107132
감각	안타까움/실망	어이없음	없음	역겨움/징그러움	우쭐덤/무시함	의심/불신	재미없음	절망	존경	죄책감	즐거움/신남
신체_내부_유기	0.361938	0.192683	0.376636	0.043635	0.08092	0.118024	0.106097	0.266151	0.04747	0.067796	0.103884
신체_내부_평형	0.331929	0.246526	0.4706	0.027245	0.102693	0.08226	0.090207	0.190517	0.037323	0.053266	0.150931
신체_외부_미각	0.417637	0.20951	0.413267	0.022084	0.118554	0.108435	0.154499	0.136909	0.023483	0.031833	0.298841
신체_외부_시각	0.364903	0.250826	0.522593	0.072766	0.147966	0.143973	0.077792	0.156041	0.064182	0.041184	0.170077
신체_외부_청각	0.266935	0.224659	0.478481	0.053851	0.11915	0.124136	0.053843	0.117398	0.099485	0.032753	0.22588
신체_외부_피부_온도각	0.312147	0.117915	0.432423	0.029667	0.057009	0.072341	0.056942	0.157206	0.05055	0.03334	0.234957
신체_외부_피부_촉각	0.315654	0.199568	0.517249	0.051542	0.154395	0.157866	0.096489	0.140597	0.063377	0.031582	0.22516
신체_외부_피부_통각	0.365074	0.189453	0.452781	0.034007	0.100831	0.144387	0.084983	0.254172	0.044526	0.050359	0.078711
신체_외부_후각	0.377722	0.260803	0.40819	0.195631	0.114986	0.180177	0.090838	0.175667	0.027277	0.041098	0.193418
심리_내부	0.441171	0.1149	0.463308	0.029846	0.04723	0.083607	0.129465	0.21317	0.036166	0.045257	0.049411

-유기											
심리_내부 _평형	0.403089	0.296064	0.433553	0.139544	0.123519	0.239049	0.080637	0.238216	0.078008	0.058892	0.107317
심리_외부 _미각	0.374264	0.226707	0.507599	0.047711	0.209471	0.142509	0.084965	0.110956	0.097791	0.029112	0.316821
심리_외부 _시각	0.369345	0.186398	0.545573	0.043041	0.164944	0.175579	0.062046	0.178584	0.107959	0.049707	0.138889
심리_외부 _청각	0.445469	0.222739	0.545415	0.034191	0.237007	0.186692	0.082887	0.310013	0.090348	0.089561	0.154339
심리_외부 _피부_온도각	0.332733	0.153116	0.38152	0.029323	0.116833	0.098199	0.055397	0.172315	0.147941	0.044848	0.269055
심리_외부 _피부_촉각	0.384406	0.180733	0.503019	0.049682	0.190341	0.161879	0.062273	0.158949	0.091222	0.042971	0.1652
심리_외부 _피부_통각	0.450584	0.148991	0.40349	0.036552	0.128995	0.13332	0.089378	0.254772	0.069811	0.070793	0.117533
심리_외부 _후각	0.36737	0.304309	0.446458	0.249318	0.163117	0.168064	0.076911	0.166629	0.035895	0.046518	0.157231
감각	증오/혐오	지긋지긋	짜증	패배/자기혐오	편안/쾌적	한심함	행복	화남/분노	환영/호의	흐뭇함(귀여움/예쁨)	힘듦/지침
신체_내부 _유기	0.064692	0.19018	0.270449	0.183159	0.138089	0.140133	0.137561	0.158087	0.090629	0.05927	0.463122
신체_내부 _평형	0.04962	0.150337	0.239603	0.151206	0.119015	0.157646	0.130801	0.11353	0.09081	0.048913	0.396513
신체_외부 _미각	0.029799	0.110633	0.180046	0.107344	0.173314	0.143843	0.244011	0.076479	0.158234	0.139019	0.26016

신체_외부_시각	0.110976	0.107964	0.199647	0.103879	0.109744	0.18778	0.139464	0.152694	0.13928	0.132209	0.19924
신체_외부_청각	0.093226	0.098338	0.192197	0.074408	0.134978	0.140694	0.192787	0.151987	0.189777	0.1313	0.180873
신체_외부_피부_온도각	0.045793	0.084243	0.154777	0.085973	0.209296	0.077167	0.285292	0.091201	0.178068	0.119083	0.261378
신체_외부_피부_촉각	0.086544	0.129024	0.207772	0.101546	0.13103	0.150017	0.196149	0.135293	0.153758	0.160757	0.206972
신체_외부_피부_통각	0.063348	0.129048	0.238465	0.124704	0.097767	0.135888	0.09485	0.138888	0.073033	0.032237	0.36362
신체_외부_후각	0.262191	0.158676	0.335569	0.115656	0.117503	0.206578	0.172162	0.260359	0.10063	0.129015	0.194944
심리_내부_유기	0.035511	0.144348	0.204678	0.106678	0.103085	0.088465	0.079526	0.079188	0.087145	0.035665	0.409474
심리_내부_평형	0.196938	0.141495	0.267147	0.136676	0.057657	0.223813	0.090542	0.239315	0.095272	0.072771	0.242058
심리_외부_미각	0.079299	0.074983	0.120504	0.076879	0.138177	0.189688	0.229338	0.092182	0.208365	0.177541	0.128779
심리_외부_시각	0.087612	0.100579	0.131535	0.124115	0.114958	0.187785	0.149777	0.125265	0.154744	0.10903	0.215661
심리_외부_청각	0.083613	0.174508	0.171243	0.235507	0.104997	0.214831	0.151685	0.15119	0.164301	0.115557	0.34037
심리_외부_피부_온도각	0.06527	0.119184	0.14575	0.125707	0.173682	0.159537	0.285266	0.104236	0.208145	0.114732	0.225934
심리_외부_	0.087145	0.120057	0.156256	0.103471	0.110639	0.194852	0.152916	0.135434	0.127882	0.056191	0.218411

피부_촉각											
심리_외부_피부_통각	0.063685	0.158669	0.152403	0.171927	0.130586	0.165282	0.125594	0.105864	0.110368	0.040445	0.384084
심리_외부_후각	0.388763	0.158671	0.405769	0.148609	0.122195	0.287297	0.178739	0.374888	0.080434	0.110551	0.174512